



**BURBERRY**

BURBERRY.COM

# Style

조선일보

NOVEMBER 2014 vol.117



**FENDI**

FENDI.COM





# CHANEL

FINE JEWELRY



"CAMÉLIA"

RING WHITE GOLD AND DIAMONDS

갤러리아 명품관 East (02) 3442-0962

[www.chanel.com](http://www.chanel.com)



# Dior PRESTIGE

새로운 디올 프레스티지 '르 넥타 드 뉘'  
첫 꽃봉오리에서 추출해 낸 강한 생명력,  
매일 아침, 새로 피어난 피부를 만나보세요

## 나이트 타임을 위한 특별한 에센스

로즈 드 그랑빌의 가장 고귀한 성분을 담은 디올 프레스티지의 '르 넥타 드 뉘'.  
꽃이 활짝 피어나기 직전의 꽃봉오리는 강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첫 꽃봉오리에서 추출된 고귀한 성분을 담았습니다.

디올 사이언스의 특별한 과정: 냉침법을 통해 수 십 겹의 꽃잎 속에 담긴 생명력이 밤 사이 천천히 피부에 스며들어 빠르고 깊숙하게 효과를 전달합니다.  
얼굴에 드러난 나이의 고민으로부터 멀어진 듯, 아침에 눈을 뜨면 매끄럽고 빛나는 피부를 만날 수 있습니다. 매일 밤, 달라진 피부를 경험하세요.

디올 프레스티지는 디올 가든에서 재배되는 로즈 드 그랑빌을 약 14년여 간 연구한 결과입니다.







Women Collection

**IB**  
1735  
**BLANCPAIN**  
MANUFACTURE DE HAUTE HORLOGERIE

**BLANCPAIN BOUTIQUES**

블랑팡 직영부티크 - 갤러리아 EAST 지하1층 (02-6905-3367) ·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2층 (02-3467-8426)

에비뉴엘 2층 (02-2118-6474) · 공식지정판매처 -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2층 드로어썬글 (051-745-1350)

워커힐 면세점 B1층 (02-450-6564) · 신라면세점 서울점 2층 (02-2230-3868) · 신라면세점 제주점 2층 (064-710-7351)

[www.blancpain.com](http://www.blancpai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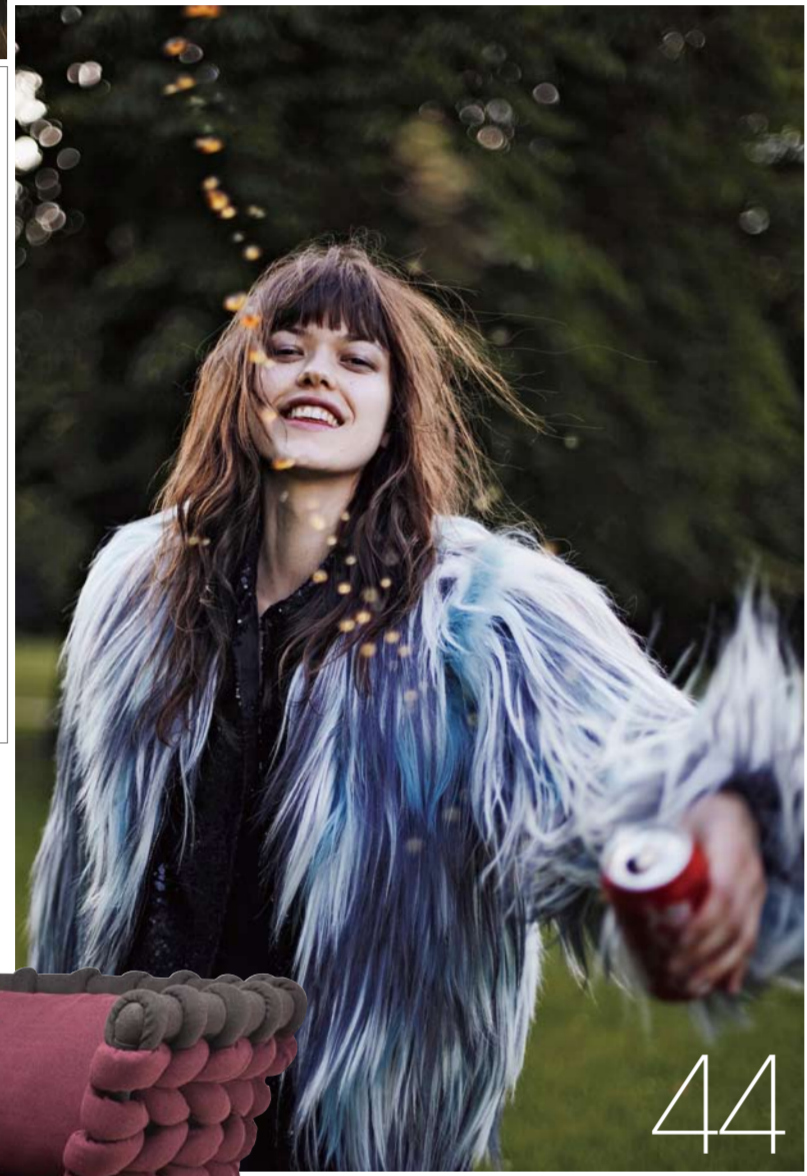
18



42



표지에 등장한 이미지는 펜디의 F/W 컬렉션 중 바 이 더 웨이 백이다. 펜디 로고가 핸드백 장면에 새겨져 있고, 이 나뭇잎을 새길 수 있는 펜드트 참 이 장식되어 있다. 실용적인 디자인이 특징으로 클라치, 토트, 보스턴백 등 네 가지 다양한 스타일로 연출할 수 있다. 알반적인 가죽 소재는 야리 퍼 이스케이프, 블랙 & 화이트 송치, 파이트 갤럭시 버전까지 다양한 스타일 중 선택할 수 있다. 문의 02-2056-9023



44



12

# Style 조선일보 Issue.117 November 2014

- 16 **WATCHES & WONDERS 2014** 스위스를 넘어 아시아 시장에서 성공을 거둔 고급시계브랜드 워치스 앤드 원다스를 <스타일 조선일보>가 직접 취재했다.
- 18 **A SAIL IN THE WOODS** 파리 서쪽 불로뉴 숲의 아름다운 정원에 새롭게 터를 잡은 루이 비통 피운데이션. 미술관은 해체주의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을 만큼 파격적인 건축가 프랑크 게리의 작품이다.
- 20 **ARTISTIC FACE** 아티스틱한 타치가 가득 담긴 화려한 페이스의 주얼리 워치 컬렉션.
- 22 **PROMISE OF LOVE** 사랑을 하나로 완성하는 커플 링 컬렉션.
- 24 **BLUE OR GREY** 차분한 그레이 톤의 스퀘레트 워치와 에니멜링으로 완성한 블루 다이얼.
- 26 **MEN'S ESSENTIALS** 과도한 피지, 건조함, 트러블, 주름 등을 한 번에 다스려줄 단 하나의 멘즈 코즈메틱.
- 28 **EDITOR'S PICK** 사들인 날씨를 살피는 11월의 코즈메틱.
- 30 **FUNKY SOLES** 단순히 두꺼운 디자인이 아닌 스타드와 체인 장식, 톱니바퀴 디테일로 굵에 힘을 준 투박한 남자구두가 대체다.
- 32 **MR. CLUTCH** 모던한 디자인과 세련된 감성의 남성용 클라치.
- 34 **FUN & CHIC** 유머러스한 캐릭터의 패션계 웃음 유발자들.
- 36 **TIMELESS MASTERPIECE** 시계의 역사, 오메가의 역사 연재 기사의 마지막을 장식할 컬렉션은 오메가의 별, 컨스텔레이션이다.
- 38 **COOL EVOLUTION** 세계적인 건축가와 디스플레이 전문가를 동원해 공간의 미학을 살린 건축물, 분다삼 창랑.
- 39 **NEW CLASSIC** 손목을 유려하게 감싸는 해리 원스톤의 다이아몬드 워치는 우아함과 섬세함, 여성스러운 기질을 모두 지니고 있다.
- 40 **CHANTILLY ARTS & ELEGANCE** 리처드 밀이 후원한 아트 & 엘레강스 이벤트가 열린 프랑스 상티에서 보낸 우아한 나날.
- 42 **2015 S/S PITTI UOMO** 매년 1월과 6월이면 피렌체는 세계 최대 규모의 남성복 박람회 피티 워드(Pitti Uomo)에 참석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모인 멋쟁이 남성들로 떠들썩하다.
- 44 **BOHO GIRL** 가을 햇살 아래 더욱 돋보이는 포근한 소재의 트렌디 아이템들. 계절의 끝에서 그 따뜻함을 만끽한다.
- 52 **PEARLY HEAVEN** 타카카가 지난 10월, 진주의 색다른 얼굴을 엿볼 수 있는 새로운 컬렉션을 선보였다.
- 53 **BEAUTIFUL VALUES** 프레스티지 덴마크 주얼리 브랜드 판도라 글로벌 앰배서더의 아름다운 삶과 가치, 그녀들의 에센스 이야기.
- 54 **RARE LUXURY** 가장 진귀한 성분과 최신 테크놀로지를 담은 세럼, 리-뉴트리브 엘티미트 다이아몬드 스킴프팅/리후닝 듀얼 인퓨전.
- 55 **VOLUMINOUS SKIN** 보다 더 탄력 있고 매끈한 피부를 원한다면 설휘수의 볼류미네이팅 피운데이션을 톡톡 두드려 바라보자.
- 56 **TOTAL ANTI-AGING** 기존 스킨케어의 한계를 뛰어넘는 클리란스의 토털 안티에이징 솔루션에 주목하라.
- 57 **바디 트리오 향기 레이어링 법칙** 기본 좋은 향이 하루 종일 이어진 다? 24시간 사라지지 않는 조 말론 런던의 향기.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이사 | 이석기 stonelee@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피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뷰티 에디터 | 배미진 mijin@chosun.com 권유진 yjkwon@chosun.com  
 이메진 yejin\_lee@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숙 okida@chosun.com 교열 | 이정현  
 광고·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조동일 ci@chosun.com 재무 | 이민희 mhlee@chosun.com 분해·제판 | 사빛 그래픽스  
 인쇄 | 타리타피에스 발행처 |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805 현대 하이퍼리온 비즈니스센터 110호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529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각주로 두 번 발행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stylechosun.com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 실질적인 정보의 리서치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허사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m



THE RAINBOW BUTTERFLY

# GRAFF

THE MOST FABULOUS JEWELS IN THE WORLD

THE SHILLA HOTEL +82 2 2256 6810

WWW.GRAFFDIAMONDS.COM





포토그래피 박정윤

포토그래피 박정윤

**Jewel ABSOLUTE CABOUCHEON**

가장 클래식하고 전통적인, 최고의 주얼리 브랜드가 선사하는 카보슈 컷의 매력.

(오른쪽 윗부터 시계 방향으로) 페라도트, 에미스트, 아이돌라이트를 매커팅한 볼륨감 넘치는 비록스 컬렉션 비즈리 링 가격 미정 **사블 화인 주얼리**, 8.81캐럿 핑크 카보슈 쿼츠를 안고 있는 시지 링 5만원대, 로즈 쿼츠로 거북이 모티브를 완성한 네르스 1천만원대 모두 **부시온**, 에미스트를 유려한 카보슈 컷으로 완성한 에디티아만 1.1캐럿 컬렉션 링 1천만원대 **블리디**, 미치 사랑처럼 사랑스러운 하늘색 스트로으로 완성한 코르넬 링 1백50만원대 **루시에**, 골드 원사리 안에 보라색 에미스트를 세팅한 올브리프 링 1백만원대 **티 파니**, 카보슈 컷 레오노 문 스톤을 중심으로 뿔나뿔꽃을 표현한 위스티리아 브로치 4천5백만원대 **타사키**, 에디티 **베르진**



**Fashion STYLISH TECH**

매 순간을 기록하기 바쁜 우리에게 휴대폰과 미니 태블릿은 나를 드러내는 또 하나의 패션 소품이다. 패션 하우스의 엔트리 아이템으로 자리 잡은 테크 케이스.

(가운데 윗부터 시계 방향으로) 핏카가 멋지게 쓰여 있는 소가죽 아이폰 케이스 1백50만원 **벨루티**, 광택이 도는 진한 자두빛 악어가죽 아이폰 케이스 1백50만원대 **클로버**, 지퍼가 있어 수납이 편리한 아이폰 케이스 40만원대 **프라다**, 쓸수록 멋스럽게 바라는 악어가죽 아이폰 케이스 55만원 **구찌**, 블랙 바탕과 꽃무늬 프린트의 대화가 인상적인 아이폰 케이스 65만원대 **인케이스**, 라임, 레드 등 다양한 컬러로 선보이는 갤럭시 S5 소가죽 케이스 50만원 **루이비통**, 에디티 **베르진**

©2014 Harry Winston, Inc. harrywinston.com

**HARRY WINSTON**



PREMIER LADIES 36MM by HARRY WINSTON



갤러리아 EAST 02-540-1356 현대 무역센터점 02-3467-8734 신세계 센텀시티점 051-745-1346 롯데 면세점 소공 02-759-6733 코엑스 02-556-3279 부산 051-810-2844 워커힌 면세점 02-450-6486 신라 면세점 제주 064-710-7351



**최신 뷰티 트렌드의 메가, 라페르바**

쏟아지는 뷰티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말로 좋은 제품, 내게 맞는 제품을 고르는 매의 눈을 가진 현명한 뷰티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비싸다고 해서, 명품 코즈메틱 브랜드라고 해서 맹신하는 것이 아닌 브랜드의 콘셉트부터 철학, 성분, 디자인까지 꼼꼼히 따지고 화장품을 선택하는 가치 소비형 패턴이 트렌드로 대두되고 있는 것. 이런 추세에 따른 가장 반가운 변화는, 국내에서도 최신 트렌드를 담은 다양하고 특별한 글로벌 뷰티 브랜드를 만날 수 있다는 점이다. 신개념 뷰티 라이프스타일 편집숍 라페르바(Ra Perva)는 고귀한 물건과 다양함이라는 라틴어의 합성어로 이루어진 이름처럼 세계 각국의 아주 특별한 뷰티 브랜드인 앙상블 선보이는 뷰티 마니아들의 상자다. 뉴욕 업타운의 하이엔드 브랜드에서부터 북유럽의 감성을 담은 브랜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뷰티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콘셉트로, 3백65일 일상의 아름다움을 업그레이드하는 스킨케어, 메이크업, 보디 & 헤어, 향수 등 다양한 토탈 뷰티 제품을 선보이는 것이 특징. 대표적으로 뉴욕 맨해튼에서 탄생한 오가닉 힐링 브랜드 레드 플라워, 북유럽의 감성, 디자인, 패션을 담은 네덜란드 태생의 고급도 메이크업 브랜드 티즈, 정통 이탈리아 오가닉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필립 마틴스, 뉴욕 업타운의 상징적인 하이엔드 퍼퓸 브랜드 아이데스 데 베누스니스, 스위스 유라피언 럭셔리 퍼퓸 브랜드 바이레드 등 한국에서 쉽게 접하지 못했던 신선하고 글로벌한 코즈메틱 브랜드가 가득 포진해 있다. 모던하고 럭셔리한 인테리어가 특징인 라페르바 매장에서는 이 다양한 브랜드의 제품을 직접 테스트해보고 내게 맞는 제품을 카운슬링받을 수 있으니 아름다운 변화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꼭 한번 방문해보길. 라페르바는 분당점,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SSG 창동 마이분에서 만날 수 있다. 문의 02-3440-3948 에디티 **박정윤**

**INSIGHT**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Living 늦가을을 장식하는 유아하거나 상큼한 와인**

풍요로운 가을이 놓이아가는 가운데 만찬에 어울리는 감미로운 프리미엄 와인 신제품이 선보여 눈길을 끈다. 해마다 10월이면 와인 애호가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뉴질랜드의 소비용 블랑 클라우디 베이(Cloudy Bay), 라임 껍질과 자몽, 복숭아, 레몬그라스 등 과일의 풍미는 물론 미네랄이 탁월한 완성도 면에서도 어려모로 뛰어난 평가를 받는 제품이다. 올해 나온 클라우디 베이 소비용 블랑 2014를 위한 메인 비주얼은 '연녹색으로 와인의 신선함을 표현한 오펀스 작가와의 협업으로 탄생했다'고. 칠레산 와인의 우수성을 널리 알린 브랜드 코노수르(Cono Sur)에서는 매년 3천 병만 한정 생산한다는 프리미엄 와인 '실렌시오(Silencio)'를 처음 내놓았다. 스페인어로 '고요함', '침묵'을 뜻하는 이 명칭은 시음한 모든 이들이 한동안 말을 잊을 만큼 빠져든 채 이 와인의 맛과 향을 음미하게 된다는 데 착안했다고 한다. 코노수르가 2010년 마이포 밸리에서 수확한 카베르네 소비용 품종으로 공들여 빚어낸 실렌시오의 첫 빈티지가 마침내 선보인 것이다. 짙은 루비색을 띤 이 와인은 붉은 과일 향과 제비꽃 향, 그리고 오크와 삼나무 향이 어우러져 있다. 역시 마이포 밸리의 산물인 프리미엄 와인 '산타리타(Santa Rita) B1'도 모습을 드러냈다. B1이란 명칭은 1백30여 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산타리타에서 가장 오래된 와인 자장고 보데가 우노(Bodega Uno)에서 딴 것으로, '하나가 되자(he one)'라는 의미를 지녀 화합을 도모하는 자리에 알맞다는 설명이다. 에디티 **고성연**



**Exhibition <반 고흐: 10년의 기록展>**

세계적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아왔지만 한국인이 가장 애정을 지닌 예술가에 손꼽힐 만한 비운의 화가 반 고흐의 작품을 다스 이색적인 환경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찰칵 핀 아몬드 나무', '까마귀가 나는 밀밭' 등 고흐의 명작들을 평면 전시가 아니라 HD급 프로젝터를 활용해 4m가 넘는 대형 스크린으로 만끽할 수 있는 기회다.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내년 2월 8일까지 4개월에 걸쳐 개최되는 <반 고흐: 10년의 기록展>이다. 여기에 전시되는 3백여 점의 회화에는 그동안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작품들까지 포함된다. 모션 그래픽 작업이 완료된 작품을 대형 스크린과 기둥, 심지어 바닥을 통해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신선할 뿐만 아니라 나를 작품과의 일체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게 이 전시를 주최하는 미디어엔터테인먼트 관계자의 설명이다. 반 고흐의 감성을 첨단 기술력으로 바꾸면 느낌이 색다르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배우 고희현, 야구 선수 이태호, 가수 씨드린 등 사회 각 분야 인물들이 자마다의 개성에 맞게 제각각 반 고흐의 흉상을 선보이고 있다. 홈페이지 vangogh2014.co.kr, 문의 1661-0207 에디티 **고성연**



천연 안모로 만들어 더욱 복잡한  
마름모꼴 패턴의 빈백스파  
2백만원간 by 유엔아스.

여러 개가 겹친  
조명기에 패밀 로즈  
컬러를 칠해 더욱  
부드럽고 따스한  
느낌을 주는 텐던트  
조명 1백만원대  
루이스 폴센 by  
덴스크.

패밀리룸을 위한 벽걸이 선반  
3백만원대 by 인디디자인.



컬러와 모듈을 선택해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조합·확장할 수 있는 커스터마이징 책장  
가격미정 문타나 by 덴스크.

귀은 로프로 스티치하듯  
테이블 가장자리를 장식한 독특한  
디자인의 커피 테이블 3백만원대  
케네스 코본푸 by 인디디자인.

# for her Selection

핑크 컬러는 단독으로 사용하기보다 비슷한 듯 다른 컬러와 매치하면 본연의  
매력이 배가된다. 특히 무채색인 그레이와 함께 사용하면 여성스러우면서도  
시크한 분위기가 완성된다. *photographed by kim jan dee*

이러한 컬러를 잘 어울린 듯한 패턴을  
원하는 색채를 패턴들을 더한 도자 오브제  
4백만원대 라네 by 앙스토어.

복유림의 전설적인  
디자인이 아르네  
아름다운 색상에  
디자인한, 물방울을  
같은 모양의 사이드 চে어  
가격 미정 프리츠 한센  
by 에이후스.

패딩의 일종인 두껍고 폭신한 완단을  
고아서 만든 이지 암체어 3백만원대  
케네스 코본푸 by 인디디자인.

진짜 줄수준(리빙룸/베드룸/스튜디오)  
에스토틀 컬러(리빙/리빙) 가격미정

그레이의 톤과 두 가지 컬러를 오묘하게 섞고 있어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색감이 달라지는 라운지 체어  
가격 미정 테노 by 인디.

로즈 컬러의 오벌 플레이트와  
은은한 핑크 컬러의 머그  
각 6만8천원, 5만3천원 에델바움.

핸드 드로잉으로 완성한  
심플한 패턴의 쿠션  
8만7천원(배송 포함)  
윈노르 by 에이치픽스.

금색 단추에 고무줄을 걸쳐 투경을 여닫을 수 있게 만든  
유니크한 패턴의 종이 수납 박스 크기로 3만2천원,  
3만5천원, 4만원 하우스타터 by 에이컬러스.

- 덴스크 02-592-6058
- 인파니 02-3447-6000
- 에델바움 02-522-0350
- 엘스토어 02-790-8408
- 유엔아스 02-547-8009
- 이노메싸 02-3463-7752
- 인디디자인 02-546-0661
- 에이치픽스 070-4656-0175
- 에이후스 02-3785-0860
- 에잇컬러스 070-8654-3637

Purify within. Perfection beyond.  
Simply transformative.



클레드뵘 보떼  
NEW 시나키티프 크림

주름개선기능성인중 | 미백기능성인중

www.cledepeau-beaute.com

SYNACTIF  
Crème



나무와 금속을 결합해 만든 스톤 그레이 컬러의 플로어 마르셋 by 두오모 코리아.

특수 재질로 만들어 관리하기 쉬운 지그재그 패턴의 카펫 2218천원 브라티스웨덴 by 이노베사.

그리스와 로마 신화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신상 모양의 향초 4만9천원 샬터원.

철제 프레임에 굵은 로프를 뜨개질하듯 엮어서 완성한 하이백 스타일의 라운지 체어 5백만원대 케네스 코본푸 by 인디디자인.

우드 상판에 Y자 모양의 엘로 포인트를 준 사이드 테이블 가격 미정 B&B이탈리아 by 인피니.

복유리의 아름다운 자연에서 영감을 받아 특유의 조형적인 디자인을 선보인 핀홀의 '엘리칸' 체어 1천66만원 원컬렉션 by 에이하우스.

진짜 장수용 (내장 장판니스트) 어시스트먼트 컬러(레드)고 직감(서)

# for him Selection

그레이를 사용하면 컬러 매치가 쉬워지는 것은 사실이나, 자칫 잘못하면 지루해질 수 있다. 그럴 때 옐로와 머스터드 계열의 컬러로 포인트를 주면 생동감 있는 분위기로 반전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photographed by kim jan dee*

화이트와 옐로 컬러로 체크 패턴을 만든 양모 소재의 블랭킷 23만8천원 이세베트.

공예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굵은 짜인의 원형 러그와 정사각형 스톤 가격 미정 간 by 유엔어스.

태완쿠터 소재의 그릇과 등구 불이 달린 손잡이에 이목이 어울릴 뿐 아니라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C-타입 '플로어' 1688천원 메종드십비.

몸을 감싸는 등근 등받이와 견고한 시트, 사선 모양의 디자인이 구조적인 디자인으로 결합된 사이드 체어 1백20만원 e15 by 다올니.

그레이 쿠션에는 녹색 단추를 사용하고, 머스터드 쿠션에는 보라색 단추로 포인트를 준 직사각형 쿠션 각 15만원(세 포함) 헤이 by 이노베사.

유연한 곡선 형태가 몸을 부드럽게 서포트해 편안한 휴식을 선사하는 라운지 체어 '켄드스케이프' 가격 미정 B&B이탈리아 by 인피니.

- 인피니 02-3447-6000
- 샬터원 070-8881-8006
- 두오모 코리아 02-516-7083
- 다올니 02-3442-4672
- 메종드십비 02-518-2220
- 에이하우스 02-3785-0860
- 이노베사 02-3463-7752
- 이세베트 02-532-4953
- 인디디자인 02-546-0661
- 유엔어스 02-547-8009

emporioarmaniswissmade.com - ARS 4040-



EMPORIO ARMANI  
SWISS MADE



# Watches & Wonders 2014

지난 9월 29일 홍콩 컨벤션 센터에 최고급 시계 시장을 이끄는 수장들이 모두 모였다. 총 13개 브랜드(몽블랑, 오데마 피게, 까르띠에, 반클리프 아펠, 바쉐론 콘스탄틴, 랑에 운트 죄네, 리처드 밀, 예거 르쿨트르, 피아제, 파넬라이, 보메 메르시에, IWC, 로저 드뷔)의 CEO가 한자리에 모여 2회를 맞은 워치스 앤드 원더스(Watches & Wonders) 개최식을 축하하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이들은 최고의 제품을 들고 홍콩을 찾았고, 시계 애호가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스위스를 넘어 아시아 시장에서 성공을 거둔 고급시계박람회 워치스 앤드 원더스를 (스타일 조선훈보)가 직접 취재했다.

## 까르띠에 파사드 까르띠에 스키텔론 드래건 모티브 워치 42mm

이번 워치스 앤드 원더스에서 16개 새로운 모델, 두 가지 새로운 무브먼트, 네 가지 독특한 하이 주얼리 제품 등 총 68개의 다채로운 워치 컬렉션을 선보인 까르띠에. 그중 가장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화려함의 극치인 파사드 까르띠에 스키텔론 드래건 모티브 워치다. 힌과 권위의 상징인 드래건 형상을 정교하게 세공한 까르띠에 매뉴팩처 메카니컬 무브먼트를 장착했다. 전설적인 동물인 드래건을 표현한 스키텔론 형태를 띤 9617MC 칼리버를 장착해 독특한 오라를 뿜어낸다. 까르띠에가 가진 모든 시계 기술과 열정을 담은 모델이다.

## 오데마 피게 로열 오크 컨셉 GMT 투르비옹

브랜드의 시그니처인 로열 오크가 화이트 세라믹과 화이트 러버 소재를 장착하고 완전히 새로워졌다. 다이얼 정중앙에 모래시계를 연상케 하는 형상의 티타늄 소재 구조물과 화이트 세라믹, 러버 소재를 매치해 시선을 압도한다. 3시 방향에는 GMT를 표기하는 세컨드 창이 있고, 9시 방향에서는 0.45g에 불과한 투르비옹 캐리지의 섬세한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다. 팔각형 다이얼 형태가 화이트 컬러를 입은 것만으로도 로열 오크 마니아들에게는 일대 혁신이다. 세라믹은 스틸보다 강도가 9배 이상 높고 다이아몬드를 제외한 거의 모든 다른 소재보다 강하기 때문에 스크래치가 날 위험이 낮다. 초경량 알루미늄과 강도 높은 티타늄, 하이테크 메탈까지 소재에 대한 오데마 피게의 다양한 시도와 오랜 노하우가 돋보이는 제품이기도 하다. 핸드와인딩 매뉴팩처 칼리버 2930을 장착했다.

## 바쉐론 콘스탄틴 매트릭스 캐비노티에 이스트로노미카

가장 까다롭고 어려운 기술을 선보이기에 품격 있는 워치 브랜드의 대열에 이름을 올리는 바쉐론 콘스탄틴은 올해 천체 기능을 탑재한 천상의 예술 작품을 선보였다. 단 하루만 제작했을 정도로 정교한 기능을 담은 이 워치는 수동 기계식 칼리버 2755-B1 안에 15가지 까다로운 컴플리케이션 기능을 모두 담고 있다. 총 8백29개의 부품을 사용했지만 가독성이 뛰어나고 디자인이 심플하다. 미닛 리피터, 윤식차 측정, 투르비옹, 페페추얼 캘린더, 윤년 표시, 월, 일, 요일, 파워 리저브, 일출과 일몰 시간, 시·분 표시 등 11개 이상의 컴플리케이션 기능

을 시계 앞면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더욱 놀라운 것은 가독성이 뛰어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여러 기능을 담은 시계들은 복잡한 기능만큼이나 읽기 어려웠다는 것을 생각하면 진일보한 발전이다. 여기에 천체, 하지와 동지, 춘분과 추분, 항성시, 세계질, 십이궁도 등 천체와 관련된 컴플리케이션을 담고 있어 말 그대로 시계에 만든 작은 우주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워치다.

## 몽블랑 메타모포시스 II

2개의 얼굴을 지닌 특별한 워치. 마치 막이 열리면 무대가 나타나듯 하나의 다이얼이 열리면 그 밑에 또 다른 다이얼이 나타나는, 시선을 자극하는 디자인이 인상적인 워치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작동을 하나의 무브먼트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 크로노그래프와 클레시 워치의 기능을 모두 담은, 전통적인 명품 시계 제조 기술과 혁신적인 원리를 대담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결합했다. 총 7백46개의 부품을 사용했으며, 이 중 4백94개의 부품이 온전히 변신을 위한 것일 정도로 정교하다. 18개 한정 생산했다.

## 리처드 밀 RM56-02 사파이어 투르비옹

실제로 홍콩 전시장에서 가장 눈길을 사로잡은 제품이다. 브랜드를 대표하는 토너 형태에 완벽하게 투명한 사파이어 케이스 워치는 심지어 포토제닉하기까지 하다. 3년 전 출시된 RM56 사파이어 투르비옹 스포츠 크로노그래프 이후로 이 이상의 완성도는 어렵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올해 워치스 앤드 원더스를 위해 제작한 모델로, 투명한 사파이어 부품과 케이스를 장착한 무브먼트를 통해 초정밀 시계의 세계에서 가벼운 무게와 투명성이라는 숙제를 모두 해결했다. 어려운 소재에 대한 도전은 멈추지 않는 리처드 밀은 사파이어 소재의 와인딩 베젤 브리지와 투르비옹 브리지를 새롭게 디자인했고, 케이스 역시 견고한 사파이어를 가공해 완성했다. 케이스 하나를 제작하기 위해 40일, 무브먼트 공정과 마무리 작업에 4백 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진정한 하이테크 워치다. 10개 한정 생산한다.

## 반클리프 아펠 미드나잇 플래너리움 포에틱 컴플리케이션

브랜드 고유의 워치 테마인 시적인 워치, '포에틱 컴플리케이션'이라는 콘셉트에 걸맞은 신비로운 워치가 탄생했다. 천상 궤도에서 영감을 얻어,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행성을 재해석한 작품이다. 이 아름다운 워치가 정교한 셀프와인딩 메카니컬 무브먼트라는 사실이 더욱 놀랍다. 각 행성이 실제 태양을 중심으로 한 회전 일수와 똑같이 움직이는 경이로운 결과를 낳았다. 토성 디자인의 워치 다이얼이 한 바퀴 도는데 실제와 같이 29년이 걸리며 목성은 12년, 화성은 6백87일, 지구는 3백65일, 금성은 2백24일, 수성은 88일이 소요된다. 각 행성은 모두 고구려 원석으로 표현해 마치 눈앞에서 천체가 움직이는 것과 같은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다. 대를 물려도 손색이 없는, 오직 반클리프 아펠만이 만들어 낼 수 있는 예술품이다.



보메 메르시에

## 보메 메르시에 프로메스 컬렉션

올해 다양한 브랜드에서 여성 워치를 집중적으로 선보였는데, 그중 가장 대중적이면서 섬세한 코드를 완성한 것이 바로 보메 메르시에의 프로메스 컬렉션이다. 1970년대 클래식한 모델에서 영감을 받은 워치로, 독특한 형태의 라운드 케이스와 타원형 베젤, 현대적인 디자인이 특징이다. 여성미를 극대화하기 위해 30mm와 34mm의 두 가지 케이스 사이즈로 출시되었는데, 유연한 브레이슬릿의 흐름 덕분에 착용감이 뛰어나다. 마더오브펠 다이얼, 레드 골드, 다이아몬드 등 다양한 소재를 더한 디자인도 만날 수 있고, 오토매틱 워치를 원하는 여성들을 위해 기계식 셀프와인딩 무브먼트로 구동되는 모델까지 갖췄다. 여성미를 극대화한 디자인이기에 더욱 대중적이고 오래도록 착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디자인이다.

## IWC 포르토피노 미드사이즈

IWC가 대대적으로 선보인 포르토피노 미드사이즈 (Portofino Midsize). 이탈리아 휴양지의 우아함과 스위스의 정교함을 담은 아름다운 워치다. 37mm 케이스의 모델 17가지 버전과 40mm 케이스 세 가지 버전까지 총 20가지 제품을 출시할 만큼 대규모의 론칭이다. 남성 컬렉션을 중심으로 다뤄던 IWC에서 여성에게 어필하기 위한 컬렉션을 선보였다는 것도 이례적이다.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사랑받는 포르토피노 컬렉션의 사이즈를 조율해 절제된 아름다움으로 완성했다. 손목이 가는 남성 고객과 IWC를 원하는 여성을 타겟으로 잡았기에 가장 심플한 디자인부터 다이아몬드와 문패지를 장착한 모델까지 선택의 폭이 넓다. 세계적인 포토그래퍼 피터 린드버그와 함께한 포르토피노 광고 이미지들도 아름답다.

## 랑에 운트 죄네

### 리처드 랑에 페페추얼 캘린더 테라루나

구조적이고 미학적인 시계의 다이얼과 백 케이스에서 완벽한 우아함을 느낄 수 있는 모델. 특히 받은 아름다운 궤도형 문패이즈, 브랜드 고유의 대형 날짜 창을 장착한 페페추얼 캘린더, 2개의 베젤로 구동되는 14일 지속 파워 리저브와 정확한 시간을 표시하는 콘스탄트 포스 이스케이프먼트까지, 조화와 대담성을 모두 표현했다. 여기에 시계를 세팅할 때 멈출 수 있도록 고안한 1815 투르비옹은 시계 전문가들마저도 놀라게 한 기능이다. 압도적인 디자인과 상상을 초월하는 완성도, 여기에 담백하고 클래식한 터치가 가미되어 컬렉터들의 마음을 더욱 강렬하게 사로잡았다.

## 피아제 알티플라노 900P

워치메이커이자 주얼리 브랜드로 잘 알려진 피아제가 선보인 세계에서 가장 얇은 시계 알티플라노(Altiplano) 900P. 피아제는 지금까지 자체 제작으로 선보인 37개의 인하우스 무브먼트 중 무려 25개의 무브먼트를 울트라-신 모델로 선보였을 정도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추었다. 그중 14개의 무브먼트가 지난 몇 년간 울트라-신 부문에서 신기록을 수립했다. 이러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선보인 알티플라노 900P는 두께가 3.65mm에 불과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무브먼트와 케이스가 통합된 독특한 구조로 핸드와인딩 무브

먼트와 케이스 부품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해 만들 수 없을 만큼 얇은 시계를 완성했다. 케이스 백에 메인 플레이트 역할을 하는 대담한 구조가 울트라-신 위치를 완성한 결정적인 요소다. 머리카락보다 얇은 부품이 있을 정도로 정교한 이 제품은 일부 휠의 두께가 0.12mm에 불과하다. 고정된 부품과 움직이는 부품의 간격이 1백분의 1mm 정도라니 과연 시계 예술이라 칭할 만하다.

## 로저 드뷔 오마주 미닛 리피터 투르비옹 오토매틱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시계 장인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로저 드뷔에게 헌정하는 오마주 컬렉션을 대표하는 모델로, '결착'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45mm 핑크 골드 케이스의 뒷면에는 로저 드뷔의 서명이 각인되어 있고, 브랜드 특유의 화려하고 압도적인 디자인이 특징이다. 제네바 인증을 획득한 완성도 높은 무브먼트를 장착한 모델로, 20개 한정 생산한다.

## 예거 르쿨트르

### 랑데부 아이비 미닛 리피터

'시간의 멜로디를 울리자'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완성한 아름다운 디자인의 랑데부 아이비 미닛 리피터. 전 세계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랑데부 컬렉션을 보다 정교한 장인 정신으로 완성한 제품이다. 고급 시계 기술 중에서도 난이도가 가장 높은 미닛 리피터(시간을 알려주는 알람 기능을 담은 여성 워치는 흔치 않기에 이번 컬렉션을 통해 예거 르쿨트르의 저력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아름다운 소리를 들려주는 칼리버 942A 무브먼트를 39mm 소형 케이스를 위해 특별히 디자인했고, 43시간 파워 리저브 기능까지 갖췄다.

## 파넬라이 루미노르

### 블랙 실 & 루미노르 데아라이트

올해 파넬라이의 마니아, 파넬리스트들을 열광케 한 스페셜 에디션 세트. 1996년 파넬라이 마니아인 영화배우 실베스터 스탤론의 주문에 따라 제작한, 파넬라이의 초기 정신을 가장 잘 담은 2개의 시계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워치다. 5백개 한정 생산하는 이 세트는 이탈리아 왕실 해군 특공대에서 사용했던 희귀한 군대 장비에 대한 설명이 들어 있을 뿐 아니라 파넬라이 시계와 기구에 대한 설명서까지 담겨 있다. 1996년 제작된 시계의 디자인을 충실하게 담았지만 무브먼트는 수동 P.5000 칼리버를 장착해 빈티지함과 정교한 완성도를 모두 느낄 수 있다. 스트랩까지 클래식한 디자인을 그대로 따라 마니아들의 소유욕을 더욱 불러일으킨다. **KS 에디터 배민진** (홍콩 현지 취재)



로저 드뷔



MC



예거 르쿨트르



파넬라이



오데마 피게



까르띠에



바쉐론 콘스탄틴



리처드 밀



몽블랑



반클리프 아펠



랑에 운트 죄네



피아제



에디터 배민진



# a sail in the Woods

건축학자들은 도시란 점진적으로 형성되지만 변화를 통해 성장하는 거대한 인공물이기도 하고 설명한다. 도시를 형성하는 건축 작품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 맥락에서 특유의 아름다움을 헤칠 수 있다는 이유로 새로운 랜드마크가 들어서기 유난히 까다로운 파리의 도시 풍경에 참신한 변화의 요소가 생겼다는 사실이 반갑다. 파리 서쪽 블로뉴 숲의 아름다운 정원에 터를 잡은 루이 비통 재단 미술관, 현대미술이 자유롭게 뛰노는 실험의 장이자 소통의 공간이 될 이 미술관은 해체주의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을 만큼 파격적인 건축가 프랭크 게리의 작품이다. 파리는 도시와 자연, 그리고 예술에 대한 애정이 배어 있는 듯한 이 공간을 그가 소망하는 대로 충분히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건축이 될 듯하다.



편곡을 시도하기에 유난히 까다로운 곡이 있다. 완성도를 떠나 원곡의 이미지 자체가 본전도 건지기 힘들 만큼 워낙 단단해 삽사리 손대기 힘든 경우다. 답대하면서도 섬세하게 계획된 근대 도시의 상징인 파리는 그런 성격이 짙은 도시가 아닐까. 19세기 중반 나폴레옹 3세의 야심찬 지휘 아래 개선문을 중심으로 12개 대로가 방사선 모양으로 뻗은 지금의 정돈된 골격을 갖추게 된 이 찬란한 도시는 우리가 현재 느끼는 '고색장연함'을 유지하도록 엄격한 보호를 받았다. 물론 원도심을 함부로 개발하지 못하도록 규제의 날을 날카롭게 세워온 정부가 뒤에 버티고 있기도 하지만, 자칫 건드렸다면 도시 미관을 망친다라는 세인의 비판을 각오해야 할 정도로 보수적인 정서도 깔려 있다.

그런데 파리 서쪽 끝자락에 위치한 블로뉴 숲, 나폴레옹 3세가 역시 무척이나 공을 들였다. 아름다운 도시 숲에 모두의 시선을 잡아끌 만한 '새로운 랜드마크'가 등장했으니 유럽이나를 들쭉일 만도 하다. 수백 년의 정기를 품은 딱딱나무와 너도밤나무가 우거진 블로뉴 숲의 아틀라티타시용 공원 안, 눈부신 녹음(綠蔭)을 배경으로 호젓하게 구름 속을 떠다니는 하얀 돛단배를 연상케 하는 인상적인 건축물의 정체는 루이 비통 재단에서 예술의 소통 공간으로 마련한 현대미술관. LVMH 그룹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이 '꿈의 실현(a dream comes true)'이라고 표현할 만큼 오랫동안 애정을 쏟아온 루이 비통 재단 미술관(Fondation Louis Vuitton)이다. 미술관 설립에 대한 꿈이 싹튼 건 199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본격적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한 시기도 2006년이므로 그야말로 숙된 사업이다. 많은 이들이 그토록 애지중지해온 파리의 풍경에 의미심장한 변화의 한 조각을 빚어낸 회계의 주인공은 아마도 세계적으로 이름값과 몸값이 가장 높지 않을까 싶은 캐나다 출신의 스타 건축가 프랭크 게리(Frank O. Gehry). 건축계의 노벨상으로 일컬어지는 프리츠커상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잘 지은 미술관 하나로 도시 부흥을 일궈낸 사례로 지겨울 정도로 자주 언급돼온 빌바오의 구겐 헤임을 디자인한 거장이다. 루이 비통의 브랜드 파워에 잘 어울리는 인물이 아닐 수 없다.

## 프랭크 게리라는 브랜드와 루이 비통의 조우는?

그러나 예술을 위한 교류의 장이라는 의도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프랭크 게리와 루이 비통의 만남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팽배하게 공존해온 것도 사실이다. 20세기 후반부터 '스타키택트(starchitect)'라는 단어가 생겨났을 정도로 엄청난 스타 건축가들의 권력, 그리고 그들이 지구촌 곳곳에 흩뿌린 듯한 자기 복제식 작업에 대해 결코 곱지 않은 많은 시선이 엄연히 존재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탈리아 건축가이자 이론가 알도 로시의 말처럼 건축 작품이란 도시 속에서 저마다 개별성을 띠긴 하지만 사회나 문명 생활에서 분리될 수 없는 집단적인 성격도 지닌 모호한 창조물이 아니란가. 건축가의 창조적인 자율성에 지나치게 무게가 실리면 자칫 도시의 영혼을 오롯이 담아내야 할 건축물 자체는 '주권을 잃게 된다'는 근심 섞인 주장도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것일 터다. 현대 건축의 역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겨 온 거목임에는 분명하지만 관습에서 벗어난 파격적인 비정형의 조각 같은 작품 세계로 유명

한 프랭크 게리 역시 때때로 이런 비판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했다. 그러므로 그가 과연 파리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헤치지 않고 브랜드의 자존심을 세워주면서도 자신의 창의적 오라까지 투영한 작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궁금증을 쏟아낸 건 어쩌면 당연했다. 아마도 이러한 우려 섞인 관심의 농도를 충분히 인식하고 고민했기 때문일까? 2014년 10월 말, 드디어 블로뉴 숲에서 길과 속살을 모두 드러낸 루이 비통 재단 미술관의 개관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에 모습을 드러낸 프랭크 게리는 살짝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난 이 장소를 둘러싼 진지한 무게감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결코 이 프로젝트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어요. 꽤나 겁나는 일이었지요." 그의 목소리는 자못 진지했다.

아르노 LVMH 회장은 프랭크 게리를 만나기 전에 몸소 빌바오 구겐헤임을 찾아가 매력적인 위용을 자랑하는 거대한 티타늄 건축물을 마주하고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건물을 상상하고, 실제로 지을 수 있을까?"라고 감탄했다고 한다. 연간 관람객 수 1백만 명이라는 엄청난 성공을 거둔 빌바오 구겐헤임의 무게감, 그리고 파리의 존재감은 게리가 아무리 과거를 의식하지 않는 성향이라 하더라도 은근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다. 하지만 게리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건 다행히도 항상 그에게 동기를 불어넣는 '건강한 불안감(healthy insecurity)'이었던 듯하다. 자신의 작업은 언제나 건축주의 '협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그는 루이 비통이라는 브랜드가 추구하는 공간의 미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이 평생에 걸쳐 쏟아온 예술에 대한 사랑까지 담아낸 듯 보였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건축 언어를 과하지 않게 나름대로 잘 살렸다.

## 겉은 역동적이면서 속은 단순미가 느껴지는 공간의 미학

일단 부드러운 곡선미가 특징인 12개의 유리 돛을 자랑처럼 두른 이 미술관은 겉에서 보기에는 험차면서도 우아하다.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를 떠올리기도 하지만 건물의 '뼈대'를 드러내는 특유의 방식이나 남성적인 느낌이 게리의 창조적 영혼을 담아내고 있는 듯하다. 바람을 맞으며 항해하는 유리 배로 보이든, 숲에 내려앉은 커다란 구름으로 보이든, 혹은 한 마리 헤엄치는 고래처럼 보이든 울창한 수풀에 40m 높이(지상 3층, 지하 1층, 테라스 2층)로 볼거져 있는 이 건물이 '뒤틀리는' 평가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지나치게 위압적이지는 않다. 잡지 <매니티 페어>에 실린 폴 골드버거의 글에도 설명해 있듯이 주변 지형을 바꾸고 시선을 확장시키면서도 아이들이 뛰노는 숲 속 공원이라는 맥락을 마구 침해한다는 느낌은 주지 않는다. 게리표 건축 디자인답게 이 미술관은 각도에 따라 다른 뎀시가 드러나는데, 개인적으로는 물이 흐르는 계단이 보이는 입구 쪽에서 건물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멋졌다. 물 위를 유유히 떠다니는 유리 범선 같다는 느낌이 확연히 들어서일까. 여기에 환한 햇빛마저 가세하면 마치 베버랜드로 향하는 피터 팬이 된 듯, 절로 동심이 솟구친다. 항상 '움직임(movement)'을 표현하는 데 관심이 있지만 차갑지 않은 인간적인 느낌을 창출해내고 싶었다는 게리의 설명이 와 닿는 순간이다. 이 기본 좋은 길은 건물 내부의 지하 전시장으로 이어지는데, 여기



1, 6 파리 16구 블로뉴 숲의 아틀라티타시용 정원에 자리 잡은 현대미술관 루이 비통 재단 미술관. 총 면적 1만1000㎡ 규모에 미술영 세트가 운영하는 레스토랑, 11개 갤러리, 서점, 오디오룸 등이 들어 있다. 2 건물을 향해 이어진 계단에 물이 흐르는 구도 덕분에 입구에 서서 미술관을 바라보면 정말로 유리 돛단배가 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3 현존하는 최고의 스타 건축가로 꼽히는 프랭크 게리. 4 10월 말, 개관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미술관을 설계한 프랭크 게리의 창조 영혼을 담은 특별전으로 그 표문을 열었다. 5 토마스 슈타가 직접한 커다란 물의 수호신 'Mann im Matsch', photo by SY7 엘스워스 켈리는 오디오 리움의 무대 커튼에 자신이 젊은 시절 파리에서 그린 작품 '스펙트럼(Spectrum)'을 반영했다. 8 노란 모자이크 표면이 건물과 교차하며 빛나는 올라퍼 엘리아슨의 인상적인 설치 작품 '인사이드 더 호라이즌'. 오는 12월부터 엘리아슨의 솔로전도 이곳에서 열릴 예정이다.



에서 만나는 설치 작품 '인사이드 더 호라이즌(Inside the Horizon)' 역시 매력적이다. 온통 노랑으로 덮인 배경 속에서 찬창까지 닿은 세로로 긴 거울들이 LED 조명을 받은 채 주르르 늘어선데, 이리저리 열심히 움직이다 보면 수십 개 거울에 자신의 모습이 비치는 '스위트 스폿'을 찾을 수도 있다. 요즘 가장 '핫한' 작가 중 한 명인 올라퍼 엘리아슨(Olafur Eliasson)의 작품으로, 시각적인 즐거움과 함께 독특한 체험의 재미까지 준다. 흥미로운 건 안으로 들어가면 또 다른 분위기의 공간이 펼쳐진다는 점이다. 마치 걸고 속이 구분된 2개의 공간이 존재하는 느낌이다. 로비에는 커다란 물고기 설치물이 달려 있지만 공간 자체가 날찍한 데다 어디에서든 하늘이 시야에 들어오고 빛이 혼 혼하게 잘 들어오는 만큼 전반적으로 해사하고 경쾌한 분위기다. 또 건물 전체에 걸쳐 11개의 갤러리가 들어서 있지만 개성이 두드러지지 않고 다소 비어 있다는 느낌이 들 만큼 여유롭고, 깔끔하게 정제돼 있다. 프랭크 게리는 회화나 가구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는데, 화기를 비롯한 크리에이터들을 몹시 사랑하는 그가 각종 예술 작품이 공간을 채우고 완성할 수 있도록 '여백'을 선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살짝 든다.

## 파리를 사랑하는 노장들의 진지하고도 개방된 열정

아티스트들에 대한 존경과 더불어 이 예술 공간에는 파리에 대한 애정도 은근히 묻어난다는 점이 매력을 지어낸다. "내가 프랑스를 사랑하는 건 비밀이 아니지요. 이 나라에서 산 적도 있고요. 와인과 프루스트 문학, 아티스트들, 많은 것을 사랑합니다." 그렇다. 게리는 짧지만 파리여행으로 산 적도 있다.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했지만 하버드대 대학원에 진학해도 시계학을 공부했고, LA에서 잠시 일하다가 1961년에는 파리로 건너가 한 설계 사무소에서 1년 동안 근무한 경험이 있다. 당시 그의 나이 서른둘. 이때 주말이면 프랑스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로마네스크 양식을 비롯해 프랑스의 건축에 강하게 매료됐다고 한다. 사실 프랑스는 20세기 초 근대 건축에 큰 획을 그은 르 코르뷔지에의 활동 무대이기도 하지 않은가. "롱샹 성당(르 코르뷔지에가 세운 조소적인 느낌의 예배당)에 갈 때마다 저는 감동한 나머지 눈물을 흘린답니다." 그는 초기에는 르 코르뷔지에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고백한 적도 있지만, 나중에는 '뻔이 뻔'임을 인정했다. 캐나다 토론토 출신으로 자유분방한 미국 캘리포니아로 이주했지만 본디 폴란드계 유대인 이민자의 후손으로 <탈무드>를 읽으며 자랐고, 그런데도 무신론자로 알려진 독특한 배경을 지닌 프랭크 게리. 솔직한 입담과 돌출적인 행동도 가끔 보이는 '아웃사이더'인지라 "파리에서 이런 작업을 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큰 영광"이라는 게리의 말에 진정성이 묻어났다. 그리고 최근 작품들에 비해 이번 미술관 프로젝트에서는 '힘을 뻗 듯한' 느낌이 다분히 '배려'와 '이해'로 느껴졌다. 파리는 도시와 예술에 대한 농도 짙은 애정. 아마도 프랑스를 대표하는 기업인인 건축주와 파리를 사랑하는 건축가는 바로 이 점에서 가장 크게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았을까. 미술관 꼭대기의 오픈 테라스로 올라가면 그런 면모의 진가를 느낄 수 있는 장면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이곳에서는 각도

에 따라 달라지는 파리 시내의 면면을 감상할 수 있다. 반짝이는 돛들이 시야를 일부 가린다는 불만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경치가 일품이다. 파리의 이미지를 그대로 담고 있다는 아틀라티타시용 정원의 비둘기담은 물론이고 도시의 상징과도 같은 에펠탑, 시원하게 뻗은 라레팡스의 마천루. 게다가 한국인들에게는 뜻밖의 선물이 될 '보너스도' 기다리고 있다. 바로 블로뉴 숲 속에 조성된 '서울 정원(Le Jardin de Seoul)'이 눈에 띄어온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도시의 경관을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루이 비통 재단 미술관은 50년 뒤에는 파리 시민들의 소유가 될 예정이라고.

## 아직은 '미지수인 컬렉션, 백지에 펼쳐질 향연이 궁금하다

먼 훗날 파리 시에 넘겨지기에 앞서, 세계적인 컬렉터로 손꼽히는 아르노 회장을 배경에 둔 루이 비통 재단 미술관에서 과연 어떤 컬렉션을 보여줄지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 물론 아직은 루이 비통 재단 미술관의 '콘텐츠인' 소장 컬렉션에는 아직 이렇다 할 점수를 줄 단계가 아니라는 지적이 많다. 10월 27일 공식적으로 문을 연 루이 비통 재단 미술관의 개관 전시는 내년 3월까지 3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인데, 현재 1부에서 공개된 타린 사이몬, 엘스워스 켈리, 게르하르트 리히터 같은 작가들의 작품 구성이 다소 심심한 '맛보기'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1부에서는 '건축 자체에 대해 집중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한정된 범위에서 작품을 선정했다고 한다. 실제로 프랭크 게리가 파리에 대한 오마주의 손길을 펼쳐 보인 데 대한 답례라도 하듯 개관 전시의 핵심 축은 이 85세의 노장에게 헌정됐다. 게리가 블로뉴 숲을 보고 LA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처음 탄생시켰다는 스케치부터 3차원(3D) 소프트웨어로 이를 실현해낸 각종 모형까지, 재단 미술관을 디자인한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다. 마침 풍파두에서도 그의 건축적 업적을 살펴보는 회고전이 열리고 있다. 호의적이든 아니든 파리에서는 나름 '게리 효과'가 일어나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쿨한 반응이다. '내 손을 떠난 작품에는 어떤 변화라도 입힐 수 있다는 태도다. 그는 과거 작품들의 영광에 안락하지 않기에 심지어는 사진도 찍어놓지 않는다고 했다.

"내가 바이올린을 만들었으니 이제 그녀가 연주해야 하겠지요(웃음). 그녀를 믿어요." 여기서 프랭크 게리가 언급한 '그녀'란 이 미술관의 큐레이팅을 총괄하는 수잔 파케인데, 언뜻 보기에도 카리스마가 뚝뚝 묻어나는 '그녀'에 대한 믿음이 다들 엄청난 모양새다. 특히 앞으로 진행될 개관 전시의 레퍼토리를 보니 궁금증이 절로 생긋는다. 이 미술관에는 또 다른 묘미로 꼽히는 3백50석 규모의 오디오리움이 있는데, 이 공간의 특정한 공명을 활용한 '복합 장르'의 작품이 대거하고 있다니 관심의 촉수가 절로 뻗길 수밖에. 이슬테면 에밀리 브론테 같은 19세기와 20세기 작가들의 문학과 영화 속 인물을 다루면서 안무와 목소리까지 결합한 '이종교배'의 시도라는 것이다.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프랭크 게리의 건축 철학처럼 이 아름다운 숲 속의 미술관도 현대미술이 자유롭게 뛰노는 놀이터가 될지 자못 기대된다. **KS**

에디터 고성연(타미 한지 화제)





# Artistic face

시계는 얼굴로 모든 것을 말한다. 다이얼 위에 펼쳐진 상상의 나라에 마음을 빼앗긴다. 자연의 신비로움을 담은 머더오브펠과 고귀한 다이아몬드, 화려한 장인들의 세공이 어우러져 시계라는 기계를 예술로 승화했다. 아티스틱한 터치가 가득 담긴 화려한 페이스의 주얼리 워치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 피아제 라임 라이트 블루밍 로즈 짐이 꽃봉오리를 단순화한 디자인의 회전식 케이스 다이아몬드 워치, 클래식한 주얼리 워치의 정석이라 할 수 있다. 피아제 로즈라는 짐이 품종을 개발했을 정도로 장미에 대한 애정이 깊은 브랜드에게 더욱 의미 있다. 6천만원대, 문의 02-3467-8924 **해리 윈스턴 에바뉴 스퀘어 A2** 오버사이즈 케이스에 비채칭 원형 듀얼 타임 다이얼이 매력적인 대담한 여성 워치. 다채롭게 변형한 원형 모티브와 다이아몬드 세팅이 특징이다. 7천만원대, 문의 02-540-1356 **위블로 빅뱅 유니코 킹 골드 파베 무브먼트** 가 보이는 스텔레온 다이얼과 다이아몬드 파베 장식이 돋보이는 드라마틱한 워치, 화려함의 극치다. 가격 미정, 문의 02-3213-2239 **블랑팡 우먼 레트로그레이드** 캘린더 머더오브펠 다이얼에 로맨틱한 문패이즈와 다이아몬드로 표현한 별 모티브를 더해 시작된 아름다운 담았다. 레트로그레이드 날짜 표시 창이 우아함을 더한다. 4천만원대, 문의 02-3467-8426 **샤넬 풀름 주얼리 워치** 깃털 모티브를 표현하기 위해 화이트 골드에 1백90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가격 미정, 문의 02-3442-0962 **카르띠에 파사드 카르띠에 투명한 다이얼과 백 케이스**를 통해 드러낸 형태의 무브먼트를 온전히 볼 수 있는 이트피스, 베젤과 밴드에 에메랄드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하이 주얼리 워치로서의 면모를 드러냈다. 드러낸 눈은 에메랄드로 완성했다. 가격 미정, 문의 1566-7277 **오메가 드 빌 버터플라이** 나비를 모티브로 머더오브펠과 다이아몬드, 로즈 골드가 섬세하고 아름답게 어우러진 드 빌 컬렉션의 새로운 버전. 최근 이 컬렉션의 문장을 위해 오메가의 엠베서딘 나폴 키드먼이 서울을 찾기도 했다. 오직 여성만을 위한 컬렉션에게 더할 나위 없이 사랑스럽다. 3천만원대, 문의 02-511-5797 에디터 **베미진**



  
Montecore



## MONTECORE STORE INFORMATION

SHINSEGAE MAIN 6FLOOR T 02.310.1314  
SHINSEGAE GANGNAM 5FLOOR T 02.2026.9000  
SHINSEGAE GYEONGGI 5FLOOR T 031.695.1812



# Promise of love

두 남녀의 아름다운 사랑을 하나로 완성하는 서약의 징표, 커플 링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맨 왼쪽 줄 위부터 아래로) **사벨 프리아미에르 커플 링** 파리 방돔 광장에서 영감을 받은 필라 행사가 감각적인 커플 링, 핑크 골드 밴드 링, 화이트 골드 밴드 링 모두 1백만원대. **타피니 아틀라스 컬렉션 커플 링** 타피니 뉴욕 본사 외벽에 설치된 청동 시계의 로마숫자에서 모티브를 얻어 디자인한 커플 링,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모던함과 화려함을 모두 갖췄다. 다이아몬드 밴드 링 1백만원대. (두 번째 줄 위부터 아래로) **오메가 아쿠아 스윙 커플 링** 오메가의 베스트셀러 컬렉션인 아쿠아 라인의 우아한 곡선 웨이브를 한폭으로 해석한 18K 화이트 골드 스윙 커플 링, 밴드 링 1백만원대. **루시에 라본 커플 링** 인연의 끈이라는 로맨틱한 의미를 지닌 핑크 골드 커플 링, 유연하게 휘날리는 리본의 곡선을 표현했다. 밴드 링 1백50만원대, 다이아몬드 밴드 링 1백40만원대. **타사키 리벨로 커플 링** 부드러운 곡선의 꽃잎을 연상시키는 여성스러운 라인의 18K 사쿠라 골드 커플 링, 다이아몬드 밴드 링, 밴드 링 모두 1백40만원대. (세 번째 줄 위부터 아래로) **타사키 테이크 플러잇 커플 링** 깃털 모양의 디테일에 오픈워크 기법을 더한, 개성 넘치는 디자인이 돋보이는 플라워링 커플 링, 밴드 링 2백40만원대, 다이아몬드 밴드 링 2백30만원대. **오메가 칸스탈레이션 그리프 컬렉션 커플 링** 시계의 베젤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디자인의 18K 옐로 골드 커플 링, 한쪽 면에는 브랜드 로고가 새겨져 있다. 다이아몬드 밴드 링 3백만원대, 밴드 링 90만원대. **쇼메 리앙 컬렉션 커플 링** 변치 않는 인연을 뜻하는 리앙 컬렉션의 커플 밴드 링, 두 사람을 이어주는 듯한 연결 고리 모티브가 특징이다. 파베 다이아몬드 밴드 링 9백만원대, 다이아몬드 밴드 링 2백만원대. **블가리 세르펜티 웨딩 밴드 커플 링** 풍요, 지혜, 불멸과 장수를 상징하는 뱀에서 영감을 받은 세르펜티 화이트 골드 웨딩 밴드, 뱀의 특징적인 연모를 우아하고 정교하게 재해석했다. 파베 다이아몬드 밴드 링 0.51캐럿 기준 5백만원대, 밴드 링 1백만원대. (맨 오른쪽 줄 위부터 아래로) **쇼메 토르시드 커플 링** 파리 방돔 광장의 기둥을 플라워링 소재로 표현한 밴드 링, 특유의 나선형 무늬가 고급스럽고 우아하다. 0.05캐럿 다이아몬드 밴드 링 3백만원대, 다이아몬드 밴드 링 5백만원대. **부세몬 리트로 블랙 웨딩 커플 링** 부세몬의 아이코닉 아이벌인 퀴트르 블랙 에디션의 블랙 골드와 화이트 골드를 결합한 심플한 디자인의 웨딩 밴드 커플 링, 밴드 링 2백만원대, 다이아몬드 밴드 링 6백만원대. **부세몬 리트로 화이트 커플 링** 브랜드의 시그처 모티브를 새긴 옐로·핑크·화이트 골드, 화이트 하이 세라미믹 조화를 이룬 모던한 디자인의 커플 링, 스몰 밴드 링 4백만원대, 라지 밴드 링 6백만원대. **블가리 스피가 브라이덜 컬렉션 커플 링** 생경력 넘치는 아름다움과 영원을 상징하는 밀 아삭에서 모티브를 얻어 디자인한 모던하고 감각적인 커플 링, 핑크 골드, 플래티넘 밴드 링 모두 1백만원대. **에디터 권유진**

사벨 02-3442-0962 타피니 02-547-9488 오메가 02-511-5797 루시에 02-512-6914 타사키 02-3461-5558 쇼메 02-3442-3159 블가리 02-2056-0172 부세몬 02-772-3508

Salvatore Ferragamo  
 TIMEPIECES

FERRAGAMOTIMEPIECES.COM



페레가모 워치는 전국 유명 백화점 내  
 갤러리아클락 매장 및 공인된 판매처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080 3284 1300

VEGA  
 STAINLESS STEEL CASE  
 WITH GOLD IP TREATMENT 32 OR 38 MM  
 BROWN MOTHER OF PEARL  
 OR SUNRAY GUILLOCHÉ DIAL  
 SWISS MADE



# Blue or grey

고가의 위치라면 블랙과 화이트 컬러 다이얼을 가장 먼저 떠올리겠지만, 보다 특별하고 소장 가치 높은 나만의 위치를 원한다면 새로운 컬러에 도전해볼 필요가 있다. 차분한 그레이 톤의 스텔레톤 위치와 에나멜링으로 완성한 블루 다이얼이라면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모던함을 지켜낼 것이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오른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브레이크 마인 5817ST 신비로운 탑 블루 컬러의 다이얼에 기묘세 패턴을 새겨 브랜드 고유의 독창성이 돋보이는 마인 위치. 중앙에 위치한 슈퍼루이노바 브레이크 윈즈와 6시 방향의 빅 데이트 윈도우가 클래식한 매력을 더한다. 다이얼 사이즈는 39mm, 셀브와 인딩 무브먼트를 장착했다. 1천9백만원대. 문의 02-2118-6480

제노스 집안 원저 원리적인 카리의 창의적인 에뉴얼 캘린더 위치. 스위스 라소드공에 위치한 시계 박물관인 Musée International d'Horlogerie와 제노스 매뉴팩처의 공동 작업으로 완성한 혁신적인 컴플리케이션 위치다. 최소화된 부품으로 에뉴얼 캘린더를 완성해 기록성도 높다. 1천9백만원대. 문의 02-2118-6225

파르미자니 톨다 웨이스피어 독특한 세로 스텔라프 그레이 다이얼의 우아함을 느낄 수 있는 위치. 여행자를 위한 워터 세컨드 타임 존을 표시할 수 있고, 100% 파르미자니 인하우스 무브먼트를 장착했다. 기계식 시계로는 드물게 세컨드 타임 존을 분 단위로 조절할 수 있어 여행자의 시간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다. 5천5백만원대. 문의 02-3479-7996

크로노스워치 시리우스 아티스트 올해 바젤 페어에서 이름다운 다이얼로 프레스들의 극찬을 받은 진정한 블루 다이얼 위치. 크로노스워치가 소유하고 있는 엔트리 로한 엔진을 이용한 전통적인 에나멜 공법으로 탄생시킨 아티스트 컬렉션 중 '타일'의 서카스 콘셉트의 특별한 다이얼이다. 기묘세, 에나멜링, 스텔라프 나인팅 기법을 모두 활용해 예술적인 패턴을 완성했다. 9백80만원대. 문의 02-3467-8718

오메가 씨미스터 아쿠아테라 마스터 코-엑시컬 브랜드를 대표하는 클래식 시계이자, 워터 워터로서 대중적으로도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모델. 배 위의 갈퀴 디테일을 연상케 하는 수직 라인의 독특한 패턴이 시그처다. 우아하고 진중한 블루 컬러가 더 특별하게 느껴진다. 39mm 다이얼 사이즈에 1만5천 기우스의 자기장에서도 안전한 코-엑시컬 칼리버 8500G 무브먼트를 장착했다. 6백만원대. 문의 02-511-5797

블랑팡 피르미에르즈 비티스킵 모던 디자인 워터는 타이틀에 걸맞게 스트랩까지 그레이 컬러로 세련되게 매치한 블랑팡의 시그처 컬렉션. 스위스 탐험가 자크 파카르의 신체 수중 탐험에서 영감을 받은 컬렉션으로 빈티지한 느낌을 그대로 담았다. 셀브와인딩 무브먼트 칼리버 1315를 장착했고, 5일간의 파워 리저브 기능까지 갖췄다. 나토 스트랩의 그레이 컬러가 더욱 돋보인다. 1천2백만원대. 문의 02-3905-3367

워털로 클래식 퓨전 울트라 씬 스텔레톤 티타늄 복잡하고 예술적인 무브먼트를 그레이 컬러로 차분해 기존의 화려한 느낌을 모던하게 정리한 스텔레톤 에디션. 무브먼트를 고정하는 레드 컬러의 루비 세팅이 더욱 눈에 띄고, 스텔레톤 워터링에도 클래식하고 우아한 느낌이다. 1천9백만원대. 문의 02-540-1356 에디터 배미진



PREPARE FOR THE JOURNEY  
For whatever adventure life takes you on, get ready.  
Get Hamilton. And discover the world of *Interstellar*.

# 인터스텔라

INTERSTELLAR

11월 6일 대개봉



KHAKI PILOT DAY DATE  
AUTOMATIC SWISS MADE

ARE YOU PREPARED?  
[Interstellar.hamiltonwatch.com](http://Interstellar.hamiltonwatch.com)

**HAMILTON**  
AMERICAN SPIRIT ■ SWISS PRECISION

HOUR PASSION 롯데월드몰 갤러리백화점 대전점 센터시티점 수원점 신세계백화점 본점 강남점 경기점 센텀시티점 영등포점 의정부점 인천점 충청점 AK플라자 구로본점 수원점 원주점 명맥점 현대백화점 본점 동구점 대구점 목동점 무역센터점 미아점 신촌점 울산점 중동점 충청점 킨텍스점 디큐브시티 신도림점 DONGWHA DFS LOTTE DFS MAIN COEX WORLD BUSAN SHILLA DFS SEOUL INCHEON AIRPORT WALKERHILL DFS



# Men's essentials

자외선 차단제나 비비크림은 고사하고 로션 하나 짝어 바를 정신도 없는 남자들이라면 다음의 제품을 주목할 것. 과도한 피지, 건조함, 트러블, 주름 등을 한번에 다스려줄 단 하나의 멘즈 코즈메틱.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가운데 위에서 시계 방향으로) **아쿠아 디 파르마 클레지오네 비비에레 세이빙 브러쉬** 최고급 오소리 갈대 중에서도 가장 부드러운 목질만 살린 차려해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는다. 인체 공학적인 설계를 바탕으로 무게중심과 길이, 균형을 지고려했다. 47만원. 문의 02-517-5218

**클라린스 맨 수퍼 모이스처 밤** 밤 타원의 질감이지만 끈적이지 않거나 번들거리지 않고 신뜻하게 마무리되는 수분 제형. 남성 스키키에서는 보기 힘든 정도로 고 기능 성분인, 히알루론산과 칼슘 이온을 결합한 히알루론산 칼슘을 담았다. 50ml 5만1천원. 문의 080-542-9052

**아모레퍼미픽 맨 에센셜 플루이드** 대나무 수액이 피부에 수분을 들게 하고, 칙칙함이나 붉은기를 잡아줄 뿐만 아니라 피지 흡착 파우더가 과도한 피지를 흡수하는 울인원 제형. 160ml 15만원. 문의 080-023-5454

**헤라 울트 에센스 인 스킨** 고농축 질감의 인티에이징 스킨. 남자 피부에 최적화된 멘트 애플이 깨질만 피부결을 부드럽게 하고 인색을 고르게 한다. 주름, 미백의 이중 기능성을 인정받았다. 125ml 4만원. 문의 080-023-5454

**아쿠아 디 파르마 클레지오네 비비에레 세이빙 레이저** 얼굴 윤곽에 맞춰도록 디자인한 조인트 헤드. 방수 처리한 웨지무드 렌즈가 특징인, 안전한 면도를 위한 이치형 면도기 42만원. 문의 02-517-5218

**다들 원 에센셜** 여성용 제품이지만 화장품을 여러 개 바르는 것을 즐기지 않는 남성들도 많이 찾는 에나지 부스팅 에센스. 피부 독소를 다스리는 레드 허비스 커스 플라워 에센스가 손상된 피부를 빠르게 복구시킨다. 미끄러지듯 흡수되는 발림성도 우수하다. 30ml 14만원. 문의 02-3438-9631

**팜시리즈 에이지 레스큐+워터-차지드 젤 크림** 깊은 번들거리지만, 속이 건조한 피부를 위한 팜시리즈의 첫 수분크림. 독자적인 수분 버스트 복합체가 피부 속 수분을 묶어 탈수를 방지한다. 50ml 6만원대. 문의 02-3440-2879

**샤넬 블루 드 샤넬 애프터 셰이브 로션** 면도 후 울긋불긋해진 피부를 유연하게 해주고 신뜻하게 스며들여 끈적임이 남지 않는다. 우다-이론아 계열의 풍성한 향 덕분에 막 샤워하고 나온 듯 기분 좋은 살 냄새가 이어진다. 100ml 7만3천원. 문의 080-332-2700

**셀화수 장양크림** 주름이 걱정인 남자들에게 특효약. 장양단과 홍삼 추출물, 사포닌 성분이 살기와 탄력을 더해주며, 주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 40ml 9만원대. 문의 080-023-5454 에디터 **이예진**



# JIMMY CHOO MAN



KIT HARINGTON FOR THE FIRST MEN'S FRAGRANCE

제이추 맨 오드투일렛 수일원 (주)코이080-800-8809 JIMMYCHOO.COM

소품 촬영: 프리다



# editor's Pick

떨어지는 낙엽에도 가슴 한구석이 쓸쓸해지는 계절, 한 장밖에 남지 않는 달력을 보니 올해도 정리해야 할 시점이 왔음을 느낀다. 서늘한 날씨를 실감하는 11월의 코즈메틱.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왼쪽 윗부터 시계 방향으로) 갈랑 에테오리트 라이트 라일링 펄 파우더** 알록달록 캔디를 연상케 하며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 제품의 정체는? 바로 보일고 화사한 피부부를 완성해줄 펄 파우더. 진실의 구슬 파우더라는 애칭이 있을 수년간 전 세계 여성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브랜드의 시그니처 제품이다. 총 여섯 가지 컬러로 구성된 파우더 구슬이 피부 결정을 보양해 은은하고 화사한 광채를 머금은 피부부를 완성한다. 25g 8만원, 문의 080-343-9500. *by 에디터 권유진*

**비비 브라운 슈머 브릭 카피 다이아몬드** 워너 유명한 슈머 브릭의 반은 흘러데이 컬렉션. 겨울에는 따뜻한 골드 톤이 대신인 만큼 이겨 해-만 있으면 자체 외출은 고민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 평소 즐겨 쓰는 브라운 톤의 비비 브라운 초콜릿 필라트와 함께 사용하면 분위기 흥만한 연인으로 변신. 10.3g 6만8천원대, 문의 02-3440-2781. *by 에디터 이혜진*

**조르지오 아르마니 루즈 액스타시 402호** 레드 립스틱의 정석이자 전파는 바로 루즈 액스타시 402호다. 맑은 레드 컬러로 피부 톤을 깨끗하고 화사하게 표현해주어 데일리 립스틱으로 제격이다. 선명한 발색력과 더불어 액스타시 모이스처 립밤 성분을 함유해 립스틱은 건조하다는 편견을 깨는, 안쪽에 가까운 립스타이다. 4g 3만9천원대, 문의 080-022-3332. *by 에디터 권유진*

**아베다 스트레스 피스 컨센트레이트** 언제 어디서나 휴대하기 편해서 장거리 여행을 할 때 꼭 챙기는 제품. 마감할 때도 수시로 목 뒤쪽에 발라주면 기분 전환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오가나 팔라테스를 할 때 사용하는 것도 추천한다. 이모 마항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선물하기에도 좋은 제품. 7ml 3만2천원, 문의 02-3440-2906. *by 에디터 배미진*

**리파 카렌** 아무것도 시원한 경락 마사지사사의 손길을 잡에서도 느끼고 싶다면 백금으로 된 이 페이스 롤러에 주목할 것. 인체 전류와 동일한 미세 전류를 발생시켜 마사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마치 손으로 표창하는 듯한 전문기사의 손 기술을 재현해 몇 번만 문질러도 '정말 시원하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만큼 통진 근육이 풀리는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 39만6천원, 문의 02-3409-2104. *by 에디터 권유진*

**슈에무라 X 칼 라가케트 얼티메이트 클렌징 오일** 슈에무라가 애정하는 디자이너, 칼 라가케트의 칼라메이션 컬렉션. 칼의 귀여운 고양이 슈페타가 그려진 은빛 패키지가 인상적이다. 메이크업을 진하게 할 일이 많은 연예인이지만 지우어 주는 게 귀찮게 느껴질 때 이 제품으로 한 번에 해결하시라. 450ml 12만원대, 문의 080-022-3332. *by 에디터 이혜진*

**다올 디오리퍼 베르니 골드 에쿠아스** 올해 가장 먼저 출시되어 시선을 끌었던 다올의 내일 레거, 내일 마-이러면 훌훌 말 만한 보틀과 컬러가 예뻐서, 평범한 금색이 아니라 브론즈에 가까운 은은한 빛이 고급스럽게 발색된다. 레드 컬러와 진한 와인 컬러까지 화장대 위에 올려놓으면 뿌듯할 듯. 12ml 3만5천원, 문의 02-3438-9631. *by 에디터 이혜진*

**필로소피 타임 인 어 보틀 포 아이즈 데일리 에자-디퍼닝 아이 세럼** 가장 예민하고 노화가 쉽게 찾아오는 눈가만큼은 아무 제품이나 바를 수는 없다. 끈적이지 않고 촉촉한 텍스처로 낮에 발라도 부담이 없는 아이 크림.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발휘하는 스킨 리뉴얼 복합체, 하이-포텐시 비타민 C 등을 함유해 효과는 두말하진 않겠지. 15ml 7만9천원, 문의 080-850-0708. *by 에디터 권유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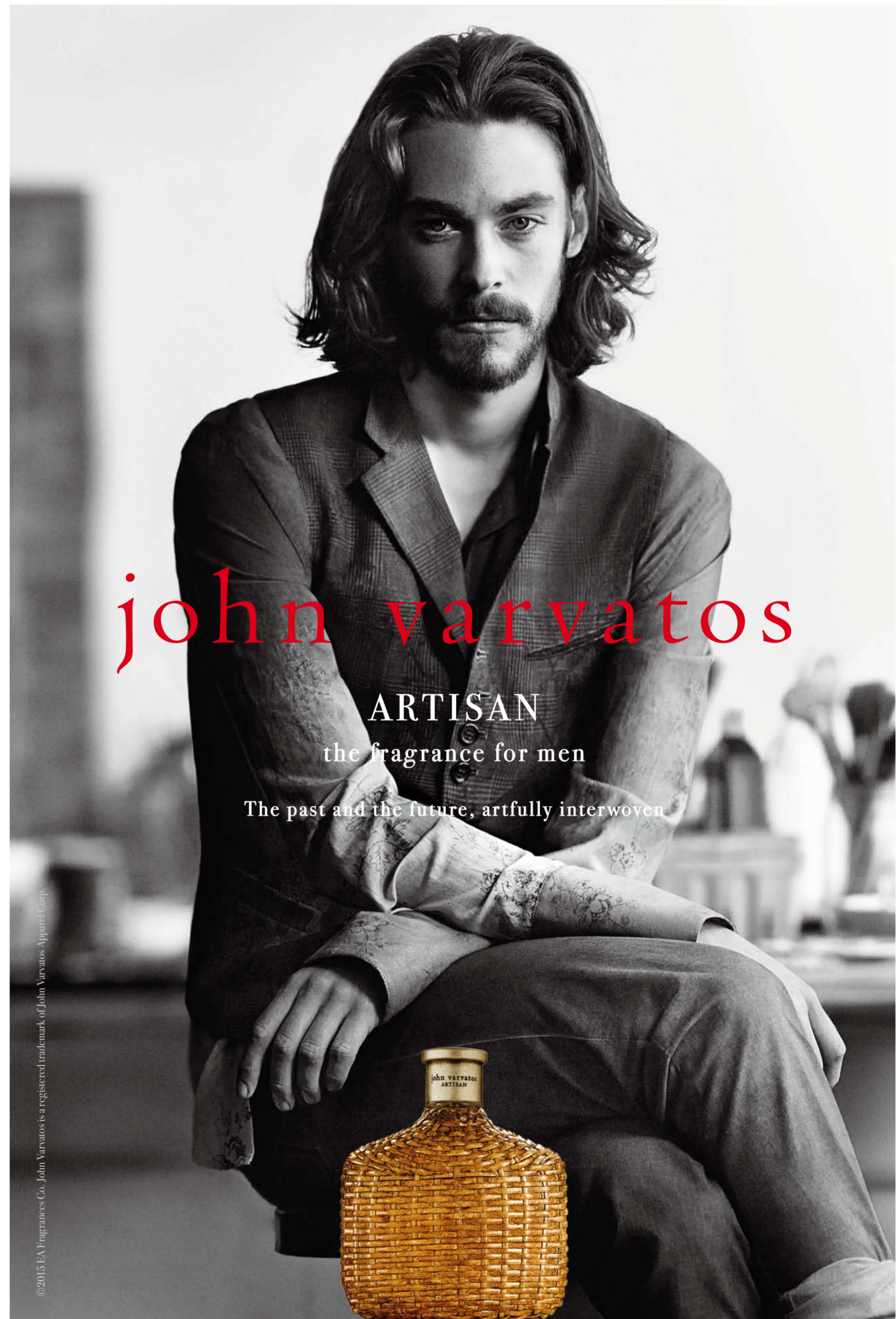
**샤넬 수블리마지 레방스** 텍스처 면에서 놀라운 완성도를 자랑하는 샤넬 수블리마지 라인. 특히 세럼은 비르는 순간 산뜻하고 촉촉하며 풍성한 느낌으로 광채만 좇아도, 피부 독소를 제거하는 콘셉트도 마음에 드는 부분. 마스크 제품부터 크림, 세럼까지 모두 완성도가 높아 어떤 제품을 선택해도 후회하지 않을 듯. 30ml 51만원, 문의 080-332-2700. *by 에디터 배미진*

**베비트 릿트 합방** 요즘 가장 손이 많이 가는 릿트 제품. 부드럽게 발리는 밤 텍스처라 인술이 건조할 때나 활력이 없을 때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인술이 좀 더 힘을 주고 싶을 땐 릿트 위에 릿트를 똑똑 두드르면 인색이 환하게 피어난다. 3g 3만원, 문의 080-001-2363. *by 에디터 이혜진*

**클라린스 토닉 바디 밤** 클라린스의 보디 제품이라면 늘 쌓여두고 쓰고 싶을 정도로 만족스럽다. 촉촉하고 흡수 빠른 크림이 텍스처로, 슬리밍 제품을 바른 듯 상쾌한 기분이 든다. 노란색 토닉 보디 트리트먼트 오일 다음에 덧바르면 흡수 속도가 빨라지고, 200ml 5만원, 문의 080-542-9052. *by 에디터 이혜진*

**쇼화수 불루마이닝 피운데이션** 미스트 쿠션에서 최근 걸터온 피운데이션 제품. 조선 시대 화장 도구를 연상시키는 애플리케이션으로 두드러진 비르는 방식으로, 뽕치지 않는다는 점이 최대 강점이다. 콧물이나 눈물을 워치할 굴곡진 피부도 문제없다. 30g 8만원대, 문의 080-023-5454. *by 에디터 이혜진*

**라프래리 셀룰라 레디언스 나이트 크림** 브랜드를 대표하는 셀룰라 라인에 새롭게 추가된 제품. 쏘쏘하면서도 부드러운 핑크빛 텍스처가 피부를 포근하게 감싼다. 피부 진화의 윤기 개선과 광채, 수분 공급에 즉각적인 효과를 발휘한다. 50ml 77만5천원, 문의 080-511-6626. *by 에디터 배미진*



# john varvatos

ARTISAN  
the fragrance for men

The past and the future, artfully interwoven

©2015 EA Fragrances Co., John Varvatos is a registered trademark of John Varvatos Apparel Corp.



# funky Soles

단순히 두꺼운 디자인이 아닌 스테터와 체인 장식, 톱니바퀴 디테일로 굽에 힘을 준 투박한 남자 구두가 대세다.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오른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산발과 같은 질라의 스테터를 굽에 장식한 반짝이는 페이퍼트 스카족 로퍼, 앞쪽에서 봤을 때는 평평해 보일 수 있는 7분작인 디자인이지만 실력 풀기만 해도 화려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발목이 드러나는 풀업 데님과 함께 경쾌하게 연출해볼 것. 2백만원대 **투이 비틀**, 문의 02-3432-1854, 신발 모양에 따라 엮은 꼬임 디테일과 체인 장식의 정교함이 돋보이는 레이스업 슈즈, 빈틈없이 완벽한 스타일을 추구하는 남자에게 추천한다. 허벅지는 여유롭지만 종아리부터 발목까지 슬림하게 밀어주는 레귤러 배기 및 팬츠가 추천 아이템. 2백29만원 **크리스찬 루부랭**, 문의 02-6905-3795, 신화 그린 컬러와 캐주얼한 굽의 조합이 신선한 클래식 슈즈, 굽이 아이저는 향채와 활동적인 느낌이 강하다. 광택이 도는 블랙 스카니 팬츠와 함께하면 그야말로 생로랑 런웨이에 서 투어나는 듯한 룩이 완성된다. 1백37만원 **생로랑**, 문의 02-6905-3924, 레이스업 디테일과 버클, 블랙 바탕에 흰 도트 무늬, 타이어 모양을 차용한 듯한 굽까지 어느 것 하나 평범한 게 없는 블랙 구두. 다음 음브 칼렉션에서 스텔러스 슈즈, 슈즈, 7월까지 온통 도트 무늬로 도배한 룩은 키 룩으로 굽힐 만큼 멋졌다. 가격 미정 **다음 음브**, 문의 02-513-3232, 구두와 스니커즈의 세련된 조합이란 이런 것. 로퍼 향채에 캐주얼한 굽이라는 상반된 요소를 매치했다. 드레스한 슈트 팬츠나 캐주얼 룩 할 것 없이 어디에나 인기 좋다. 1백38만원 **빅터 앤 로프 by 룬**, 문의 02-548-4504, 신발에 관심이 많은 남자들이라면 들어봤을 이름, 미국 슈즈 브랜드 골 향의 팀 팀 슈즈, 올해 국내에 공식 론칭해 다양한 디자인을 만날 수 있다. 무채색에 굽에만 신뜻한 컬러 포인트를 준 디자인은 옷차림 전체가 화사해지는 효과를 선사한다. 39만원 **찰원 플 한**, 문의 02-6905-3785, 톱니 바퀴를 연상시키는 과감한 카팅을 굽에 도입한 버클 장식 구두, 신을수록 멋지게 바뀌는 브라운 컬러는 활용도도 높다. 칼렉션에서 선보인 것처럼 루스한 슈트 팬츠에 매치하는 것이 멋졌다. 1백만원 **원대 프리다**, 문의 02-3218-5331, 에디터 **이예진**



사진: 김민준, 스타일링: 이예진

# paradise redefined

BOUNDLESS BEAUTY, ULTIMATE LUXURY,  
 TREASURED MEMORIES

**Finolhu Villas**  
 LE LUXE  
 by Club Med



2015. 2. Grand Open

www.clubmed.co.kr | 02.3452.0123



# Mr. clutch

처음에 남자가 클러치 백을 들었을 때 눈을 흘긴 적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다. 여자들이 탐낼 만큼 모던한 디자인인 데다 누구보다 세련된 감성으로 멋지게 소화하는 남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브랜드 고유의 세브론 문양으로 장식한 깔끔한 형태의 파우치 겸 클러치 백. 인감도 소가죽으로 처리했다. 17X30cm, 2백88만원  
**고아드**. 브리프케이스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투톤 컬러 사피아노 비닐로레 클러치. 34.5X24cm, 1백60만원  
**프라다**. 인감과 지퍼 부분을 소가죽으로 마감한 PVC 클러치 백. S, M, L까지 다양한 사이즈로 출시된다. 30X20.5cm, 33만원  
**피에로 아르디**. 컬러 블록으로 포인트를 준 우빙 디테일 클러치 백. 34X23.5cm, 1백만원  
**보타가 베네타**. 레오파드 패턴이 그려진 송지 소재가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미니 파우치. 24X16.5cm, 39만원  
**드라스 반 노튼 by 본다샵**. 강렬한 패턴이 담긴 블랙 클러치 백. 30X23cm, 1백만원  
**자황시**. 스크래치가 잘 나지 않는 소가죽 소재 클러치 백. 26X19.5cm, 69만원  
**골든구스 디렉스**. 볼록한 형태감이 돋보이는 진한 올리브 그린 컬러 클러치 백. 24.5X16cm, 1백만원  
**루이 비통**. 로고나 장식 없이 소재와 버클 장식 하나만으로 단박에 완성한 에트르에 백. 28.5X23cm, 6백만원  
**에르메스**. 에디터 아메인

프라다 02-3218-5331 **고아드** 02-3448-4778 **루이 비통** 02-3432-1854 **에르메스** 02-544-7722 **피에로 아르디** 02-310-5052 **보타가 베네타** 02-3438-7882 **골든구스 디렉스** 02-3449-5974 **자황시** 02-517-7560 **본다샵** 02-3444-3300

스타일링: 우현영, 이나영

모든 것이  
 느리게 보이기 시작했다



초당 10프레임의 고속연사  
 65포인트의 빈틈없는 올 크로스 AF 시스템  
 동영상 촬영에 탁월한 듀얼픽셀 CMOS AF  
 드디어 순간의 모든 디테일이 보이기 시작한다



플래그십의 새로운 기준  
**EOS 7D Mark II**

Canon

• 출시기념 사전판매 및 런칭 이벤트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www.canon-ci.co.kr)





**Magic Metallic**  
 (오른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사탕 모티브 캐릭터가 줄지어 매달려 있는 메탈릭한 백을 2백만원대 **다움**, 스가죽 소재의 실버 비틀로 스포츠 백, 22X25cm, 4백만원대 **프라다**, 애센셜 V 010링 1백만원대 **루이 비통**, 스트드 장식의 해골 모티브 앞츠 1125천원 **VD 초이스 by 바이커**, 우유 팩 형태의 코코 라떼 백, 30X21cm, 가격 미정 **샤넬**, 굵은 금속 구슬이 달린 스트러토 힐 2백만원대 **로저 비비에**, 허트 모티브 신클라스 32만원 **마커스퍼피 by 원복**.



**Kidult Fantasy**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안경 프린트 소가죽 파우치 10만원대 **레베카민코프**, 폭스 파들 트림한 슈즈 가격 미정 **벤디**, 구두에 매달려 있는 키링 30만원대 **아츠부키 by 쿤**, 새 모티브 오브제 60만원대 **에르메스**, 피아노 건반을 새긴 사각 클러치 백, 19X21cm, 1백29만원 **레베카미우 by 고르보**, 맥도날드 우유 상자 형태의 가방, 14X17cm, 1백7만원 **모스카노**, 악어 오브제 60만원대, 말 인형 1백만원대, 프티 스킵프 20만원대 모두 **에르메스**.

# Fun & chic

무겁고 진지하고 어려운 패션에 싫증을 느낀 패션 하우스에서 선택한 키워드는 '유머'. 힘을 덜어낸 경쾌한 모티브는 누구에게나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생활용품이나 어린이의 마음까지 사로잡는 유머러스한 캐릭터로 감탄을 자아내는 패션계의 웃음 유발자들.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Glittering Galaxy**  
 (오른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글리터 소재 루루 바니 백, 17X11cm, 1백66만원 **생로랑**, 아르딜 클러치, 17X13.5cm, 1백만원대 **지미 추**, 스웨치가 뒤집힌 체인 숄더백, 25X16.5cm, 4백50만원 **로저 비비에**, 주황색 백과 위와 녹색 백을 각 2백만원대 모두 **샤넬**, 장화를 연상시키는 PVC 앵클부츠 90만원대 **마우미우**, 눈 프린트 슬림은 슈즈 35만원7천원 **카이라 페라그니 by 쿤 위드 어 뷰**.



**Candy Pop**  
 (오른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리본 장식 플랫 슈즈 97만원 **크리스찬 루부탱**, 컬러 블록이 돋보이는 비비게트, 25.5X17cm, 가격 미정 **벤디**, 손 모양 클립 장갑 39만원5천원 **오르낭 샤르방오니 by 톰 그레이하운드**, 박형 스틸 뚜껍 프루티 미러 앵클 워치 2천4백만원대 **워렌로**, 볼드한 구슬이 달린 네크리스 1백만원대 **다위 by 바이커**, 핑크와 블랙의 조화가 모던한 백, 32X24cm, 5백만원대 **다움**, 에디터 **아베진**.

레베카 미코프 02-6905-3369 벤디 02-2056-9022 쿤 02-548-4504 에르메스 02-544-7722 고르보 02-3467-8559 모스카노 02-6905-3892 다움 02-513-3232 프라다 02-3218-5331 샤넬 02-543-8700 루이 비통 02-3432-1854 바이커 02-513-1270 로저 비비에 02-6905-3370 원복 02-514-9006 생로랑 02-549-5741 쿤 위드 어 뷰 02-3443-4507 마우미우 02-3218-5341 지미 추 02-3443-9469 크리스찬 루부탱 02-6905-3795 워렌로 02-2118-6208 톰 그레이하운드 02-3442-3696



꿈꾸던 휴가, 그 이상의 행복 **Club Med**   
 프리미엄 올-인클루시브 리조트

## 겨울휴가 BIG BONUS 2

성인 127만원대부터 에어패키지(유류할증료, 공항세 포함)

SUN 리조트 : 발리, 푸켓, 체러팅, 빈탄, 카비라, 계림, 몰디브 카니  
 SNOW 리조트 : 일본 홋카이도, 중국 야불리  
 출발일 : 2014년 10월 30일 ~ 2015년 4월 28일 예약마감 : 2014년 11월 30일  
 객실 상황 및 유가 변동으로 상품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클럽메드 예약과 및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02 3452 0123  
 www.clubmed.co.kr  
 f /clubmedkorea

- 꿈꾸던 휴가, 그 모든 것! 클럽메드 프리미엄 올-인클루시브 휴가
- ▣ 왕복 항공권 및 공항 클럽메드간 교통편
  - ▣ 알찬 프로그램이 가득한 연령대별 키즈클럽
  - ▣ 고품격 식사 및 종일 제공되는 음료, 주류 및 간식 서비스
  - ▣ 다양한 스포츠, 액티비티 및 강습
  - ▣ 인력한 객실
  - ▣ 나이트 엔터테인먼트 & 파티
  - ▣ 곤돌라, 리프트권 및 스키, 보드 강습 (SNOW 리조트)



# timeless Materpiece

세계의 역사, 오메가의 역사  
Vol.4 Constellation

하이엔드 시계의 매력은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독보적인 디자인과 최고 기술의 절묘한 조화다. 단 하나의 독보적인 컬렉션을 완성하기 위해 브랜드는 모든 노력과 비용을 아끼지 않는다. 여기에 은유와 상징, 멋진 히스토리가 더해진다면 수백 년의 세월도 이겨내는 역사적인 컬렉션이 된다. '세계의 역사, 오메가의 역사' 연재 기사의 마지막을 장식할 컬렉션은 오메가의 별, 컨스텔레이션이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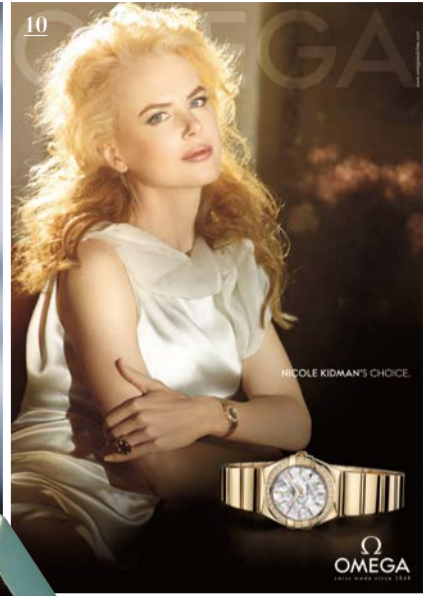
## 손목 위에서 빛나는 별, 컨스텔레이션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 가장 진지한 자세로 큰 의미를 부여하며 시계를 구입하는 대표적인 시기는 바로 결혼을 앞둔 때일 것이다. 이번 기사에서 소개할 오메가의 위치는 한국인들에게 워낙 위치로 잘 알려진 컨스텔레이션(Constellation)이다. 가장 대표적인 디자인은 화이트와 옐로가 콤비네이션된 체인 위치인데, 다이얼의 형태부터 체인 디자인까지 모두 다른 브랜드에서 찾아보기 힘든 오메가의 아이덴티티를 담고 있다. 착용한 모습을 멀리서 보아도 한눈에 오메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컨스텔레이션 고유의 디자인과 우아함이 품위를 높여주어 결혼을 위한 예쁜 위치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렇게 아름다운 디자인 덕분에 컨스텔레이션을 착용하는 사람들마저도 간과하는 부분은 1952년부터 오메가의 럭셔리 위치메이킹을 대표하는 컨스텔레이션이 역사적으로 뛰어난 기능을 갖춘 위치라는 점이다. 화려한 외관 속에 담긴 기계식 시계로서의 가치는 남다르다. 컨스텔레이션이란 간단히 설명하면 말 그대로 별, 별자리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천문학에서 컨스텔레이션은 명백한 움직임을 보이는 지구 주변 별의 집합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교한 크로노미터(항해 중인 배가 천축을 이용해 배의 위치를 산출할 때 사용하는 정밀한 시계) 손목시계, 그리고 한때 정확도 테스트의 검정 기관이었던 천문대와 정확한 시계에 대한 가치를 추구하는 시계의 이름으로 컨스텔레이션은 매우 이상적이다. 다이얼의 6시 방향에는 별 마크로 강조한 제품명 '컨스텔레이션', 케이스 뒷면에는 8개의 별로 둘러싸인 관측소 모양의 유명한 메달리온이 새겨져 있다. 시계에 담긴 이러한 메시지는 1933년과 1936년 쿤-테딩턴 천문대 경연에서 오메가가 달성한 수많은 신기록을 상기시키는데, 오메가의 정밀한 컨스텔레이션 위치는 수많은 기록을 세운 화려한 이력을 자랑한다. 1966년 순차적으로 번호를 매긴 컨스텔레이션 10만 째인 모두 공식 크로노미터 인증을 획득했다. 1972년에는 2백만 째 이상의 기계식 컨스텔레이션이 공식 크로노미터 인증을 획득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이렇게 대량의 제품을

일률적인 수준 이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은 오메가의 엄청난 기술력을 대변해준다.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적절한 가격에 일정한 퀄리티를 유지하는 생산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박물관에 보관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제품이 되거나, 소수의 마니아를 위한 소장품으로 끝나게 마련이다. 그렇지만 오메가는 항상성을 지키며 많은 사람들이 고품질 기계식 시계에 걸맞은 기능을 갖춘 멋진 제품을 착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데, 컨스텔레이션이 이 노력의 중심에 있는 것이다.

## 신디의 선택, 여성 위치를 각인시키다

컨스텔레이션과 오메가의 의미를 기리기 위해서는 오메가의 화려한 엠베서더에 대한 언급을 빼놓을 수 없다. 오메가는 1995년 마케팅의 전환점을 맞았다. 최초로 브랜드 홍보 대사를 영입하게 된 것이다. 일찍이 오메가는 좋은 제품에 걸맞은 홍보 효과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금은 당연시되지만 사실 고급 시계 브랜드에서 본격적으로 엠베서더를 기용한 것은 오메가가 최초다. 지금 컨스텔레이션 컬렉션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여성 홍보 대사는 니콜 키드먼과 장쯔이. 하지만 컨스텔레이션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인



물은 세계적인 슈퍼 모델 신디 크로퍼드다. 사실 더 트렌디한 스타를 기용하지 않은 것이 의의할 수 있지만 오메가는 브랜드를 대표하는 모델은 우아하고 대중 친화적이며 조금 더 이름이 잘 알려진 인물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단지 한순간의 인기로 엠베서더를 선택하는 것은 오메가의 스타일이 아니다. 세계적인 영화배우 조지 클루니와 니콜 키드먼은 10년 이상 엠베서더로 활동하고 있고, 신디 크로퍼드는 엠베서더가 된 지 거의 20년이 넘는다. 이처럼 이들은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한 만큼 가족 같은 마음으로 엠베서더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우파드 사장은 "이제 크로퍼드는 오메가의 또 다른 가족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했을 정도다. 신디 크로퍼드는 오메가가 여성 라인에 재정의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 남성용 여성용 모두를 위한 패셔너블하고 우아한 컨스텔레이션 하면 떠오르는 얼굴이 바로 그녀다. 신디 크로퍼드를 영입하기 전 오메가는 남성적 이미지가 강했기 때문에 여성용 시계 매출은 오메가 전체 매출의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오메가의 여성 시계 라인에서 최근 드 빌 버터플라이, 레이디메틱을 론칭한 것만 보아도 시계시장에서 여성의 파워가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알 수 있다. 최초의 컨스텔레이션은 1952년에 탄생했지만, 지금 우리가 착용하는, 다이얼 양쪽에 독특한 갈고리 모양이 디자인된 현재의 컨스텔레이션은 1982년 탄생한 컨스텔레이션 맨해튼 라인인 그 원형이다. 3시 방향과 9시 방향에 각각 2개씩 자리한 4개의 갈고리 모양 그리프(grippers)는 독창적인 뿐 아니라 기능적이기까지 하다. 다이얼 위에 있는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꼭 잡고 있어 크리스탈과 케이스가 케이스에서 튀어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방수 기능까지 향상시킨 것이다. 이 컬렉션에 신디 크로퍼드가 아이디어를 더하며 1996년 '신디 크로퍼드의 선택(Cindy Crawford's Choice)'이라는 이름으로 컨스텔레이션 라인의 광고를 시작했다. 베젤을 감싸는 클라우 장식으로 유명한 컨스텔레이션은 이 광고 덕분에 전체 매출액의 절반을 차지하며 오메가의 대표 컬렉션이 되었다. 물론 컨스텔레이션은 좋은 시계지만 전 세계에 판매량을 갖춘 오메가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마케팅과 홍보 활동의 꽃인 엠베서더가 만나 놀라운 결과를 낳은 것이다. 이 광고 이후 가장 많이 판매된 10개의 모델 중 6개가 컨스텔레이션(여성용 3개, 남성용 3개)인 정도였다. 신디 크로퍼드는 오랫동안 오메가의 셀러브리티 홍보 대사로 활동하며 현대적이고 페미닌한 컨스텔레이션의 정체성을 정립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 새로운 소재에 대한 열정, 세드나

오메가는 원래부터 완성품까지 모든 공정을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갖추었기에 지난해 컨스텔레이션을 위해 새로운 골드까지 창조했다. 바로 골드, 구리, 팔라듐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이용해 세드나 골드(Sedna™ Gold)라는, 오직 오메가만의 새로운 골드를 완성한 것이다. 일종의 18K 로즈 골드인 세드나 골드

는 오메가의 새로운 도전이다. 약간 붉은빛이 느껴지는 이 특별한 골드는 가장 먼저 컨스텔레이션 컬렉션에 적용되었다. 세계 최고의 야금학자(metallurgist)와 과학자들이 오랜 연구 끝에 완성한 골드 이기에 컬러의 지속성과 내구성 모두 뛰어나다. '세드나'라는 이름도 특별하다. 천문학자들이 통과 천체(trans-neptunia object)를 세드나라고 부른 것에서 착안했는데, 궤도를 따라 회전하는 통과 천체의 표면은 태양계에서 가장 붉은빛을 띠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세드나는 북극해 아래 살고 있다고 전해지는 이누이트(Inuit) 여신의 이름이기도 하다.

오메가 컨스텔레이션 세드나는 18K 세드나™ 골드를 사용해 제작한 최초의 시계다. 이 라미네이트 에디션 시계는 전설적인 컨스텔레이션 라인과 세계 최초로 선보이는 혁신적인 소재를 접목해 변치 않는 아름다움을 담았다. 인덱스와 바늘, 그리고 스트랩의 클래식 스프 역시 18K 세드나 골드를 사용했다. 이 위치에는 그 아름다움에 상응하는 기능이 담겨 있다. 오메가의 혁신적인 Si14 실리콘 밸런스 스프링과 오메가 코-액시얼 칼리버 8501이 장착되어 있어 외관과 무브먼트의 가치가 절묘한 조화를 이룬다. 오메가의 자부심이 담긴 코-액시얼 칼리버를 장착해 4년간 품질을 보장한다. 그리서 24개 알파벳 중 24번째 대문자이자 지극히 높은 존재를 뜻하는 오메가. 그 의미처럼 시계 브랜드 오메가는 창립 이래 1백 60여 년간 인류 역사와 동행했고, 여자들을 위한 기계식 시계를 만들었으며 대중에게 시계의 매력을 알렸다. 지금까지 6개월에 걸쳐 연재한 기사를 정리하며 오메가는 스위스 시계 브랜드를 대표하는 가장 상징적인 브랜드라는 것을 확인했다. 한 브랜드가 단 하나의 대표 컬렉션을 갖는 것만 해도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오메가는 씨마스터, 스피드마스터, 드 빌, 컨스텔레이션까지 대중에게 시계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쳤다. 달 착륙이라는 인류의 위대한 순간에 함께한 시계나 전쟁을 위한 시계를 넘어 기계식 시계를 대중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지한 오메가의 대답성은 시계 역사의 곳곳에 그 족적을 남겼다. 뛰어난 기능에 놀라운 스토리, 최고의 기능을 범용한 기술로 대중화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오메가가 지난 1백60여 년간 대중에게 시계의 가치와 매력을 알리는 가장 뛰어난 파벌마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에 대해 박수를 보내며 '세계의 역사, 오메가의 역사' 연재를 마친다. **스타 매거진**







# Cool evolution

한층 높아진 욕망의 잣대를 충족시킬 만한 쇼핑 공간이 서울 청담동 한복판에 들어섰다. 세계적인 건축가와 디스플레이 전문가를 동원해 공간의 미학을 살린 하얀 건축물이 일단 행인의 시선부터 사로잡는 분다상 청담. 프리미엄 미니 백화점을 연상케 하는 이 매장은 '모던 럭셔리'를 당당하게 주장할 만큼 외양뿐만 아니라 그 속을 채우고 있는 상품 콘텐츠도 하이엔드의 첨단을 달린다. 패션, 뷰티, 라이프스타일의 정수만을 담고 있기에 규모가 크지는 않아도 '콘텐츠의 밀도'가 남다르다고 자부하는 이 차별화된 쇼핑 공간은 청담동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할 듯하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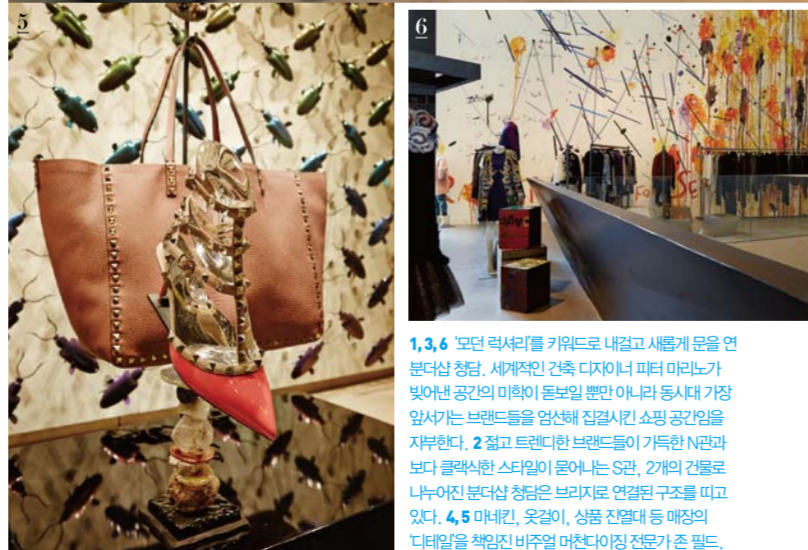
20세기가 초대국의 세기였다면 21세기는 도시의 세기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라도 하듯 서울이라는 메트로폴리스에도 다채로운 콘텐츠를 채워 넣으려는 움직임이 끊이지 않고 있다. 쇼핑 공간이라는 도시의 핵심 레퍼토리 역시 마찬가지다. 청초 도시라는 개념의 권위자인 찰스 샌더스가 창의성이 풍부한 청담 도시를 꿈꾼다면 아주 평범하고 단순한 쇼핑몰로는 이를 실현할 수 없다고 강조했듯이, 이제 대도시에서는 쇼핑이라는 특별한 유희의 몫짓도 공간의 미학이 결여된 채 진부한 여취를 구사한다면 아무리 콘텐츠가 출중하더라도 냉대당하기 쉽다. 2014년 가을, '모던 럭셔리(modern luxury)'를 외치며 서울 청담동에 새롭게 문을 연 분다상은 그런 맥락에서 충분히 유혹적인 도시의 레퍼토리가 되지 않을까 싶다.

## 패션과 건축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디스플레이의 미학

청담동 낮은 언덕배기에 솟아 있는 하얀 외벽의 범상치 않은 지상 5층짜리 건물과 색색의 나비로 장식된 듯한 매력의 원도 디스플레이. 언뜻 봐도 한눈에 인상적으로 다가오는 분다상 매장은 명품업체가 사랑하는 건축가 피터 마리노의 손길이 닿아 일찌감치 화제가 됐다. 분위기기가 사뭇 다른 2개의 관(N관과 S관)으로 이뤄진 분다상 청담을 살펴보면 자연스럽게 발길을 이끄는 동선은 물론이고 대리석과 메탈, 나무 소재를 조화해 공간의 질감을 단조롭지 않게 맞아본 감각도 뛰어난 걸러 페인팅이 돋보이는 벽이나 엘리베이터를 수놓은 프라팅, 곳곳에 배치된 오브제처럼 활기를 불어넣는 요소들도 매력적이다. 그러나 단지 피터 마리노의 예술적인 감각만으로 공간이 빛을 발하는 건 아니다. 장갑 한 켤레를 담거나 액세서리 하나를 걸더라도 남다른 정성을 들인 진열대를 활용하는 디스플레이의 미학도 특유의 한몫을 해냈다. '미네킨 하나, 옷걸이 하나를 배치하더라도 모두 공간과 어우러지도록 세심하게 공들였습시다. 특별히 분다상을 위해 제작한 일종의 작품인데, '핸드메이드' 방식으로 완성한 경우도 많지요.' 상품 진열이나 원도 디스플레이로 감각적인 특징을 갖춰 고객에게 통일감 있는 이미지를 호소하는 '비주얼 머천다이징' 분야의 전문가인 존 필드(John Field)는 공간과 전반적인 조화를 이뤄내면서 공간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상품 디스플레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영국 버밍엄 출신인 그는 20대 초반, 당시에는 유럽에서도 생소했던 비주얼 머천다이징 분야에 뛰어났었는데, 구찌, 제나, 톰 포드 등 술한 명품 브랜드들을 가지며 수십 년 동안 내공을 쌓았다. "제 역할은 패션과 건축이라는 두 축을 잇는 브리지라고 보면 됩니다. 잘 보면 N관과 S관의 분위기만큼이나 상품 진열에도 차별된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보니 블랙 메탈과 콘크리트 같은 소재를 활용해 튀는 분위기를 연출한 젊고 트렌디한 N관, 그리고 화이트 톤 대리석이나 나무 소재로 좀 더 클래식한 상품들을 우아하게 뒷받침해주는 S관의 상품 진열대는 확실히 느낌이 다르다. 각각의 공간에 맞도록 특화돼 있다고나 할까.

## 프리미엄 미니 백화점을 연상케 하는 쇼핑 공간의 진화, 스페셜티 스토어

이토록 섬세하게 디자인한 쇼핑 공간인 만큼 분다상 청담은 '멀티 브랜드 숍'이나 '편집 숍'이라는 명칭을 거부한다. 세계 곳곳에서 엄선한 최상의 브랜드를 테마별로 '에디팅'한 '스페셜티 스토어(specialty store)'를 표방한다. 칸베르파리 패션, 파인 주얼리, 슈즈 등 하이엔드 하우 브랜드들과 예지를 내세운 스트리트 브랜드가 공존하며, 장영한 브랜드의 익스클루시브 에디션이 심심찮게 공개된다. N관에는 외일 듯한 이미지로 아티스트들과 셀럽들에게 인기 높은 크루아즈, 미인 미르자엘라, 크리스토퍼 케인, 릭 오웬스, 마더 등 마니아층을 거느리고 있거나 은근히 폭넓게 사랑받는 브랜드들이 포진해 있고, S관에는 아노나, 브루넬로 쿠차렐리, 알렉산더 맥퀸처럼 '헤리티지'를 내세운 브랜드들이 들어서 있다. VIP를 위한 퍼스널 쇼핑 공간도 S관에 마련돼 있다. 이밖에 스페셜티 리테일을 즐길 수 있는 카페와 맛있는 디저트 부커티나 파스타를 접할 수 있는 이탈리아인 비스트로, S관과 N관을 연결하는 오픈 공간을 거닐 때 보이는 나뭇잎 장식, 그리고 패션아트 전시를 감상할 수 있는 'ART & SPACE' 공간도 분다상 청담을 풍요롭게 해주는 소중한 요소들이다. "단일 브랜드가 아니라 다양한 브랜드들을 테마별로 매력적으로 구성한 만큼 보다 융통성 있게 적응할 수 있어 저 자신도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작지도 않은 충분한 다채로운 쇼핑 공간의 '쿨한 진화'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존 필드의 말처럼 거대한 쇼핑몰에서 길을 잃은 듯한 느낌을 선호하지 않는다면 라이프스타일 흐름을 주도하는 최상의 브랜드들을 '정제된 공간'에서 풍부하게 만끽할 수 있는 분다상 청담은 꽤 괜찮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다. **에디터 고성연**



1, 3, 6 '모던 럭셔리'를 키워드로 내걸고 새롭게 문을 연 분다상 청담. 세계적인 건축가 피터 마리노의 손길이 닿아 일찌감치 화제가 됐다. 분위기기가 사뭇 다른 2개의 관(N관과 S관)으로 이뤄진 분다상 청담을 살펴보면 자연스럽게 발길을 이끄는 동선은 물론이고 대리석과 메탈, 나무 소재를 조화해 공간의 질감을 단조롭지 않게 맞아본 감각도 뛰어난 걸러 페인팅이 돋보이는 벽이나 엘리베이터를 수놓은 프라팅, 곳곳에 배치된 오브제처럼 활기를 불어넣는 요소들도 매력적이다. 그러나 단지 피터 마리노의 예술적인 감각만으로 공간이 빛을 발하는 건 아니다. 장갑 한 켤레를 담거나 액세서리 하나를 걸더라도 남다른 정성을 들인 진열대를 활용하는 디스플레이의 미학도 특유의 한몫을 해냈다. '미네킨 하나, 옷걸이 하나를 배치하더라도 모두 공간과 어우러지도록 세심하게 공들였습시다. 특별히 분다상을 위해 제작한 일종의 작품인데, '핸드메이드' 방식으로 완성한 경우도 많지요.' 상품 진열이나 원도 디스플레이로 감각적인 특징을 갖춰 고객에게 통일감 있는 이미지를 호소하는 '비주얼 머천다이징' 분야의 전문가인 존 필드(John Field)는 공간과 전반적인 조화를 이뤄내면서 공간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상품 디스플레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영국 버밍엄 출신인 그는 20대 초반, 당시에는 유럽에서도 생소했던 비주얼 머천다이징 분야에 뛰어났었는데, 구찌, 제나, 톰 포드 등 술한 명품 브랜드들을 가지며 수십 년 동안 내공을 쌓았다. "제 역할은 패션과 건축이라는 두 축을 잇는 브리지라고 보면 됩니다. 잘 보면 N관과 S관의 분위기만큼이나 상품 진열에도 차별된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보니 블랙 메탈과 콘크리트 같은 소재를 활용해 튀는 분위기를 연출한 젊고 트렌디한 N관, 그리고 화이트 톤 대리석이나 나무 소재로 좀 더 클래식한 상품들을 우아하게 뒷받침해주는 S관의 상품 진열대는 확실히 느낌이 다르다. 각각의 공간에 맞도록 특화돼 있다고나 할까.



# New classic

여성 시계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 무엇보다 아름다운 자태다. 손목을 유려하게 감싸는 해리 윈스턴의 다이아몬드 워치는 우아함과 섬세함, 여성스러운 가치를 모두 지니고 있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 레이 타임피스, 해리 윈스턴

윈스턴 가문의 3대가 1백 년이 넘는 전통을 이어온 프레스티지 브랜드 해리 윈스턴. "가장 좋은 다이아몬드를 원한다면 해리 윈스턴으로 가라"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뛰어난 퀄리티의 소재로 높은 완성도의 제품을 선보이는 브랜드다. 레이 타임피스(rare timepiece)라는 슬로건으로 모든 공정을 수작업으로 진행하는 장인 정신까지 담았다. 시계의 모든 부품은 스위스에서 제작되며 무브먼트 역시 100% 수작업 조립 공정을 거쳐 단 하나의 시계를 완성하기 위해 무려 1년의 시간이 걸릴 정도로 예술혼을 담는다. 그중에서도 브랜드를 대표하는 컬렉션을 꼽으라면 해리 윈스턴의 시작을 알린 부티크가 있는 뉴욕의 거리에서 영감을 얻은 에비뉴 컬렉션(Avenue Collection)을 들 수 있다. 해리 윈스턴은 생전에 뉴욕 5번가에 위치한 살롱을 가장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작품을 선보이기 위한 주얼리 박스라고 여겨 매장 자체를 보석과 가장 잘 어울릴 수 있도록 꾸몄다. 진열용 유리 케이스는 에메랄드 컷 다이아몬드 세이프프로 만들었는데, 이 디테일은 5번가 살롱을 대표하는 형태이기도 하다. 모던하고 품격을 갖춘 특별한 해리 윈스턴 살롱 자체의 아름다움을 시계로 옮긴 것이 바로 에비뉴 컬렉션이다. 웅장하고 위엄 있는 파사드와 해리 윈스턴을 상징하는 아치 형태는 이 아름다운 여성 위치에서도 거의 원형 그대로 만날 수 있다.

## 뉴욕의 아름다움, 에비뉴 컬렉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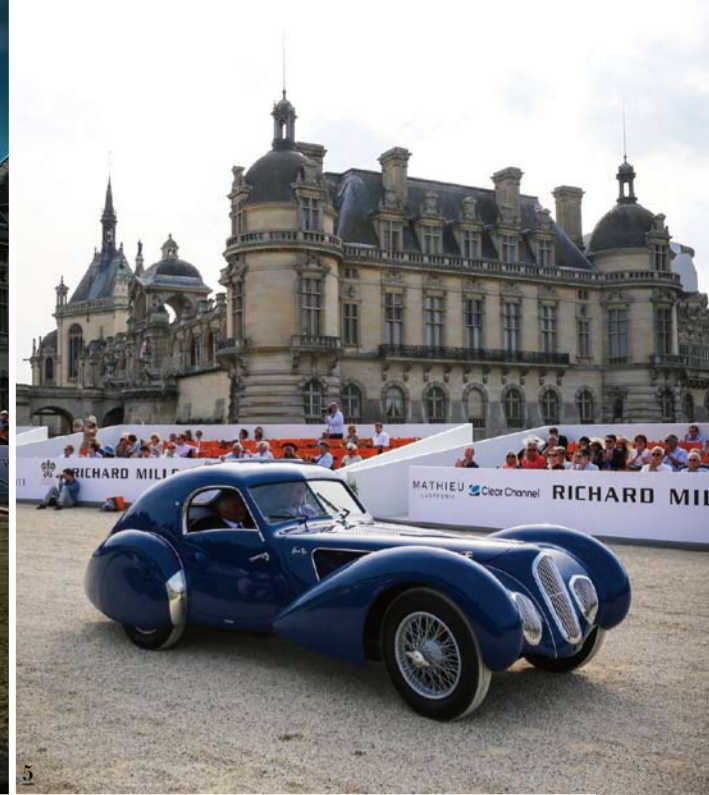
올해 스위스 바젤월드에서 새롭게 선보인 에비뉴 컬렉션을 국내에서도 만날 수 있는데, 그중 가장 화려한 디자인은 바로 '에비뉴 클래식', 해리 윈스턴이 사랑하는 에메랄드 컷 다이아몬드의 아름다움이 그대로 느껴지는 형태로, 다이아몬드를 수놓은 직사각형 베젤과 정교하게 세진 기호세 패턴이 어우러져 우아함의 극치를 보여준다. 손목을 감싸는 화이트 골드 케이스는 29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수작업으로 세팅했는데, 다이아몬드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갖춘 브랜드인 만큼 최고 퀄리티의 다이아몬

드만 엄선했다. 블랙 악어 가죽 스트랩을 매치한 것도 매력적이다. 다이얼에 다이아몬드로 원형 모티브를 넣은 '에비뉴 C' 아르데코도 여성스러운데 직사각형 케이스와 대비를 이루는 원형 다이아몬드 세팅은 에비뉴 컬렉션의 건축적인 느낌을 강조했다. 특히 숫자 6을 정교한 애플리케이션으로 장식해 입체적인 느낌이 아름답다. 에비뉴 컬렉션 중 가장 정갈하고 사랑스러운 느낌을 주는 것은 '에비뉴 C' 미나디. 에비뉴 컬렉션 중 가장 작은 디자인으로, 직사각형의 커브형 케이스 덕분에 얇고 가는 여성의 손목에 착용해도 매우 편안하다. 만일 우아함과 대범함을 동시에 원하는 여성이라면 '에비뉴 스퀘어 A2'를 권한다. 클래식한 에비뉴 컬렉션에 듀얼 타임 기능을 추가해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으로, 뉴욕의 타임스스퀘어에서 영감을 받았다. 세계적인 명소인 타임스스퀘어는 잠들지 않는 도시인 뉴욕을 상징하는 랜드마크이기도 하다. 해리 윈스턴 에비뉴 스퀘어 A2 듀얼 타임의 특징인 비드칭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데 많은 영감을 주었다. 기존 에비뉴 컬렉션의 기능과 긴 사각 형태를 오버사이즈의 넓은 사각형 형태로 변형해 과감한 아름다움을 담았다. 케이스와 다이얼에 모두 5.35캐럿에 달하는 높은 퀄리티의 해리 윈스턴 브릴리언트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화려하다. 문의 02-540-1356 **에디터 배미진**



1 (왼쪽부터) 에비뉴 C, 에비뉴 클래식, 에비뉴 C 아르데코, 에비뉴 C 미나디를 따서 다이아몬드. 2 에비뉴 컬렉션의 영감이 된 뉴욕의 이미지. 3 뉴욕 5번가에 위치한 해리 윈스턴 살롱. 4 클래식한 에비뉴 클래식을 변형한 에비뉴 스퀘어 A2.





# Chantilly arts & elegance



삼페인과 함께하는 풀밭 위의 점심, 우아한 능선에 펼쳐진 잔디 위의 클래식한 빈티지 카, 아름다운 모자 아래 이어지는 여인들의 산뜻한 웃음. 세계적인 워치 브랜드 리차드 밀이 후원한 아트 앤드 엘레강스 이벤트가 열린 프랑스 샹티에서 보낸 우아한 나날.

## 물 위에 떠 있는 샹티 성, 그리고 리차드 밀

아름다운 풍경으로 유럽에서도 다섯 손가락 안에 든다는 샹티(Chantilly) 성으로의 초대. 이 유서 깊은 고장은 말과 야외 행사를 위한 화려한 꽃 장식 모자, 물 위에 떠 있는 신비로운 성으로 유명하다. 이 세 가지 테마만으로도 이곳이 얼마나 부유하고 풍요로운 문화를 지닌 곳인지 짐작할 수 있다. 파리에서 자동차로 불과 1시간가량 떨어진 거리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한적하다. 끝도 없이 잔잔하게 이어진 잔디 위 경마장에서는 승마 선수들의 연습이 한창이다. 리차드 밀 브랜드의 창업자 리차드 밀(Richard Mille)은 이곳에서 시계가 아닌, 리차드 밀의 시계를 착용하는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과 품격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아직 리차드 밀이라는 브랜드가 생소한 사람도 많다. 하지만 하이엔드 시계를 알고 모르고를 떠나, 시계를 보는 순간 모든 이가 빠져들게 된다. 믿을 수 없을 만큼 정교한 세공과 화려한 무브먼트, F1 경주 자동차의 좌석을 연상케 하는 멋진 토너형 케이스, 제작하기 극도로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진 독특한 형태의 토너형 케이스 디자인은 이제 리차드 밀의 시그니처가 되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일반적인 값비싼 시계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비전을 담은 브랜드이기 때문에, 2001년 창립했지만 지금은 오랜 역사를 지닌 오메가 피계, 파텍 필립 등 경쟁한 시계 브랜드들과 같은 고객층을 공략할 정도다. 퀄리티 높은 시계만 선보이는 고급시계박람회(SIHH, 워치스&원더스)에 참여하는 브랜드이니 아직 그 이름은 생소하지만 모두가 인정하는 브랜드라는 것만큼은 확실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리차드 밀이 하이엔드 워치 시장에 입성한 것이 마치 간단한 일인 듯 느껴지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리차드 밀은 2001년 첫 시계를 선보일 때

과감한 결단을 내리고 성공법을 선택했다. 마케팅과 홍보를 배제하고 브랜드의 이니셜 RM을 붙인 최초의 시계 RM001 투르비용으로 첫발을 내디딘 것. F1 경주용 자동차의 콘셉트와 소재에서 영감을 얻은 이 제품은 시계 분야의 전설이라 할 수 있는 APR&P(오메가 피계 르노&파피)와의 논의를 통해 완성했고, 최초의 가격은 20만유로였다. 당연히 모두가 실패를 예상했지만 리차드 밀은 수백 개의 선주문을 받으며 흥분을 날렸다. 과감하고 미래적인 디자인에 고급 시계 전통의 가치인 최고의 기술을 담기 위해 하이테크 항공 소재를 시계에 도입하고, 정교한 무브먼트를 만들기 위해 무브먼트를 만드는 기계를 새롭게 제작하는 등 정교함과 완성도에 대한 집착이 시계 마니아들의 마음을 흔든 것이다. 창립자 리차드 밀은 원래 시계 브랜드를 만들기 전에는 카르페와 오메가 피계, 롤렉스를 즐겨 차던 시계 마니아였다. 그런 그에게 가장 궁금했던 것을 물었다. 왜 만들기 어려운 토너형 케이스 디자인을 고집하는지. 유선형의 입체감 있는 형태인 리차드 밀의 케이스는 제작하기 까다로운 것으로 유명하다. 할리우드의 슈퍼스타와 아시아의 대우호들이 즐겨 착용할 정도로 브랜드가 유명해졌으니 굳이 만들기 어려운 형태만 고집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는 의문에 돌아온 대답은 의외였다. 일부러 토너형 케이스를 고집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 그는 “본래 토너형을 고집한 것이 아니라 착용감이 편안한 커브형 케이스를 원했어요. 형태를 발전시키다 보니 토너형이 된 것이지요. 물론 어려운 것을 완성한다는 성취감이 있습니다. 우리 고객들은 훨씬 더 세심한 것을 원해요. 누구보다 멋지게 만들어야 하죠. 지금 내가 차고 있는 시계를 한번 들어볼래요? 무기가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깃털처럼 가볍죠(리차드 밀이 착용하고 있던 이 시계



는 RM027 라파엘 나달 모델로 출시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가벼운 투르비용 기록을 세운 손목시계였다. 하지만 기능은 완벽해요. 이런 시계야말로 바로 리차드 밀의 정수입니다”라고 브랜드 철학을 이야기했다. “사람들은 이제 보다 환상적인 제품을 원해요. 저는 제품을 개발할 때 효율이나 비용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프로토타입만 서른여덟 번 수정해 3년간 출사가 지연되고 있는 제품도 있어요. 하지만 착용하는 사람을 만족시키는 ‘익스트림 프로덕트’를 만들기 위해 서러면 비용과 시간, 인력까지 모든 것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리차드 밀은 이야기를 마친 후 더 이상 시계에 대해 설명하려 하지 않고 단지 이곳을 즐기라고 했다. 아름다운 날씨와 파티를 즐기는 여유로운 분위기는 마치 다른 시공간을 경험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짧다면 짧은 1시간 동안의 대화 이후 이어진 것은 샹티 사토에서 열린 미술상 3스타 셰프의 멋진 정찬 디너와 이곳을 찾은 여배우이자 리차드 밀의 친구인 나탈리 포트먼의 아름다운 자태를 감상하는 것뿐.

## 빈티지카, 멋진 시계, 여유, 그리고 또 여유

일요일 아침이 되자 샹티 성 앞에서는 아름다운 차들이 줄지어 입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호텔에서 성으로 이어지는 작은 숲길을 걸어 성에 다다르니 수백 대에 이르는 롤스 로이스와 애스턴 마틴,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빈티지 카들이 잔디밭에 늘어서 있었다. 말 탄 기사들이 자동차 사이를 여유롭게 거닐었고, 성안은 21세기 귀족들이 가득한, 전혀 새로운 장소가 되었다. 경마장에서나 찾아볼 수 있을 만한 빈티지 카들은 주인의 허락을 받으면 시승도 가능했는데, 멋진 빈티지 카의 주인공 노신사는 손님들에게 기꺼이 운전석을 맡겼다. 잔디밭에서 와인과 삼페인, 카나페를 즐기며 담소를 나누는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그림 같았다. 이번 행사에 맞추어 샹티 성 인근의 유명한 콩데(Conde) 박물관의 격조 높은 룸에서는 프라 안젤리코와 산드로 보티첼리의 걸작품들이 공개되었다. 리차드 밀의 자선 아래 15세기 르네상스 시대의 그림과 플로렌스 성당, 시에나 성당의 그

림을 파노라마처럼 전시해 진정한 예술을 논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 샹티 아트 앤드 엘레강스 행사의 아이덴티티인 선명한 옐로우 컬러 모자를 쓴 웨이터들이 서브하는 멋진 정오의 정찬이 끝나자 메인 이벤트가 이어졌다. 샹티 성 중심에 세운 무대에 차례대로 등장한 빈티지 카들은 모두 자신의 장기와 가장 멋진 모습을 뽐냈는데, 그중 최고의 차를 선정하는 것이 이 행사의 메인 이벤트였다. 모든 차들이 무대를 한 바퀴 돌며 마치 캣워크를 하듯 그 위용을 과시했다. 관람객들은 차에 대해 토론하고 평가하며 가장 멋진 빈티지 카의 영예를 누가 차지할지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그리고 자신을 전혀 드러내지 않은 채 모든 상황을 아름답게 조율한 것은 바로 궁극의 시계 브랜드 리차드 밀이다. 고급 빈티지 자동차 전시회를 중심으로 프랑스의 예술 작품과 문화를 아우르는 라이프스타일 이벤트, 샹티 아트 앤드 엘레강스는 세월의 풍파 속에 사라졌던 행사다. 하이엔드 워치 브랜드인 리차드 밀은 진정한 럭셔리 의미의 되살리기 위해 이 이벤트를 후원하게 되었고, 내내에도 개최될 예정이다. 리차드 밀은 제품의 기능을 과시하거나 가격의 정당성을 설명하려 들지 않고 우아한 파티를 열어 모두를 초청했다. 부를 과시하는 박람회나 판매가 목적인 VIP 이벤트와는 전혀 달랐다. 아름다운 성에서의 파티는 진정한 럭셔리와 하이 소사이어티, 하이 라이프스타일을 재정의했다. 가장 복잡하고 미래적인 시계를 만드는 브랜드가 클래식하고 보수적인 행사의 메인 후원사라는 것은 참이러니하다. 하지만 샹티의 멋진 이벤트에서 리차드 밀이 이야기하려는, 진정한 하이 소사이어티를 위한 섬세한 감성이 무엇인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과시하기보다는 즐기는 것, 자신만의 취향을 가지는 것, 좋은 제품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그것을 소유하는 것. 아마 리차드 밀이 자신의 이름을 단 시계 브랜드를 만든 이유 역시 이와 같을 것이다. 진짜가 된다는 멋진 오너인 리차드 밀이 앞으로 더 진정한 사치를 위한 회귀하고자 특별한 시계를 만들 것을 기대해본다. 에디터 배미진/사진: 한지 후미







# 2015 S/S Pitti Uomo

매년 1월과 6월이면 피렌체는 세계 최대 규모의 남성복 박람회 '피티 워모(Pitti Uomo)'에 참석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모인 멋쟁이 남성들로 떠들썩하다. 지난 6월, 무더위를 불사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멋지게 차려입은紳사들의 패션을 향한 열기로 들끓는 생생한 현장을 목도했다.



피렌체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남성복 박람회, 피티 워모 4대 패션 워크숍이나 남성복업계의 큰 행사로 꼽히는 '피티 워모(Pitti Uomo)'.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1년에 두 번, 1천 개에 이르는 남성 패션 브랜드 제품을 선보이며, 멋지게 차려입은紳사들이 실 새 없이 드나드는 최대 규모의 남성복 박람회다. 10분간 런웨이에서 쇼를 진행하는 컬렉션이 프레스와 VIP, 셀러브리티만 참석하는 프라이빗한 성격이라면 이곳은 옷을 사고파는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현장에 가깝다. 브랜드 관계자를 비롯해 옷을 구입하는 바이어, 잡지 에디터, 일반인까지 참석하는 보다 열린 행사로 분류할 수 있겠다. 삼성동 코엑스나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패셔너블 건물 안에 부스가 수백 개 들어서 있는 방식을 떠올려보자. 1972년 이탈리아 패션 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 탄생한 피티 워모가 올해 86회를 맞았다. 뉴욕 패션 트레이드 쇼인 '캥술 쇼와 베를린에서 시작한 독특한 패션 박람회 'BBB' 등도 패션업계에서 주목할 만한 이벤트지만, 피티 워모에 역사나 인지도, 규모가 못 미치는 것이 사실. 비율로 따지자면 정통 클래식 슈트 브랜드가 많고, 이어 캐주얼, 신발, 액세서리, 가죽, 타이까지 품목과 수량이 실로 방대하다. 이번 시즌엔 안경, 선글라스만 모아놓은 '팝아이(popeye)' 색선까지 공식적으로 추가해 패션 소품의 파이를 더 키웠다. 이탈리아 브랜드 브루넬로 쿠치넬리, 나폴리 슈트의 명가 키톤을 비롯해 독일 빈티지 캐주얼 브랜드 클로즈드(Closed), 요트를 모티브로 한 이탈리아 브랜드 폴앤샤크(Paul&Shark) 등등 나열한 이름만 보더라도 브랜드의 범주가 남 다르다는 것을 눈치챘을 것이다. 한국 디자이너로는 'Concept Korea'라는 이름 아래 고효용의 바운드 클로젯, 홍승환의 로라젠, 이주영의 레주렉션 등이 참석해 높아지는 코리아 패션의 위상을 드러냈다. 굵직굵직한 빅 브랜드도 좋지만 부스를 찬찬히 들여다보며 잘 알려지지 않은 보석 같은 브랜드를 발견하는 기쁨 역시 피티 워모를 찾는 즐거움 중 하나. 매년 주제에 따라 달라지는 전시는 2015 S/S 시즌에 '핑퐁(ping pong)'을 콘셉트로 탁구에 관련된 모티브를 동선하다 설치했다. 커다란 탁구채와 탁구대 오브제, 아다치 미쓰루의 만화(타치)의 장면을 오려 붙인 벽면, 탁구를 즐기는 유명 인사의 장면만으로 연출한 흥미로운 공간으로 디자인했다. 또 피티 워모 하면 전 세계에서 모인 멋쟁이 남성들을 빼놓을 수 없다. 오죽하면 사람 구경하러 피티 워모에 간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니까. 화려한 컬러의 슈트와 타이가 혼혈뿐더러 40°C에 육박하는 날씨에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차려입고 스트리트 포토그래퍼의 플래시를 당당하게 받는다. 잡지에서 금방 걸여 나온 듯 근사한紳사들이 고개만 돌리면 보이는 이 생경한 풍경은 남성복 패션의 중심에 들어와 있는 듯한 기분을 안겨준다. 매년 1월과 6월, 약 5일간 밤낮없이 이어지는 축제 기간에는 축제 부스 외에도 도시 곳곳에서 이벤트가 열리기 때문에 스케줄표를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 피티마지니워모(PittimagineJomo)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신청한 하면 패션 관계자는 물론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으니 세계적인 남성복 축제의 장을 경험해보는 것도 좋겠다. 에디터 **이재민** 피렌체 현지 취재



8 도지는紳사의 필수품. 캐주얼 룩이나 슈트 룩에 매치한 베레모와 페도라 스타일의 완성도를 높인다. 9, 10 피티 워모의 해비 스모크. 예시들지 않은 니트 타이와 사스펜더. 여러 개의 걸찌를 레어드한 고노도의 스타일링을 선보였다. 자칫 평범해 보일 수 있는 네이비 더블브레스트 재킷과 베이시색 차는 맨츠리만 밝은 색 핑거링과 태슬 슈즈 덕분에 자연스럽게 멋이 붙어났다. 의상되지 않는 듯 무심한 태도로 한복한 듯, 블랙보다는 확실히 브라운 컬러의 슈트가 시시된다. 디자인 역시 레이스업보다는 동크 스트랩이나 패니 로퍼가 많은 것도 우리 나라에서 보기 힘든 풍경이다. 11 'Concept Korea'라는 이름 아래 단독 건물에서 컬렉션을 선보인 한국의 디자이너들. 현지 프레스와 관계자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왼쪽부터) 레주렉션 이주영, 제이무 최진우, 민 현민, 오다나리 피롤 장형철, 병문서 사병문, 로라젠 홍승환, 바운드 클로젯 고효용. 12, 13 워크숍도 패션의 일부로 여기는 이들. 핑거링은 슈트 룩에 빼놓을 수 없는 아이템이다. 화려한 패턴이 무늬의 재킷이 카리스마를 더한다.





단정한 스물림 이미지의 순모 코트  
Gucci. 아나웨어로 받쳐 입은 니트  
Comeforbreakfast.



스트라이프 패턴의 오버사이즈 울 코트 Max&Co.  
안에 입은 가죽 소재 셔츠 드레스 Michael Kors.



# Boho girl

모직 코트, 노르딕 패턴 스웨터, 컬러풀 모피, 오버사이즈 블루종...  
가을 햇살 아래 더욱 돋보이는 포근한 소재의 트렌디 아이템들.  
계절의 끝에서 그 따뜻함을 만끽하다. *photographed by fanny latour-lambert*



장모의 와일드한 블루  
모피블루장 Emporio  
Armani. 셔츠 N°21.



레드 컬러로 신뜻하게 연출한  
사랑스러운 소녀, 노르딕 패턴  
스웨터 United Colors of  
Benetton, 레드 컬러 미니스커트  
Cometforbreakfast, 앵클부츠  
Saint Laurent by Hedi Slimane.



복고풍의 빈티지한 멋을 풍기는 캐주얼룩, 체크 재킷, 블루중, 팬츠, 가방 모두 Louis Vuitton.



울 소재의 린 터틀넥, 톨 소재의  
자수 미니스커트 모두 Chanel.



엘렌지 컬러 니트를  
레이어링해 세련되고 따뜻하게  
스타일링했다. 니트 카디건 Liu  
Jo. 안에 받쳐 입은 니트 베스트  
Rocobarocco, 티셔츠  
Freddy, 팬츠 M. Missoni.



최신 핫 아이템인 스타디움 점퍼 Fay.  
광택 있는 티셔츠 Arthur Arbesser.  
스코틀랜드 체크 셔츠 M. Missoni.  
코튼 쇼트 팬츠 Silvan Heach.

헤어 Ramona Eschbach(Oribel)  
메이크업 Maria Olsson(Urban Decay)  
모델 Anna Nevala(Monster)  
스타일리스트 Silvia Gabrielli





# Pearly heaven

진주에 관해서는 독보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타사키가 지난 10월, 진주의 새로운 얼굴을 엿볼 수 있는 새로운 컬렉션을 선보였다. 진주가 클래식한 보석이라고만 생각했던 사람이라면 이번 컬렉션을 통해 타사키가 완성한, 진주의 대반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진주의 드라마, M/G 타사키 컬렉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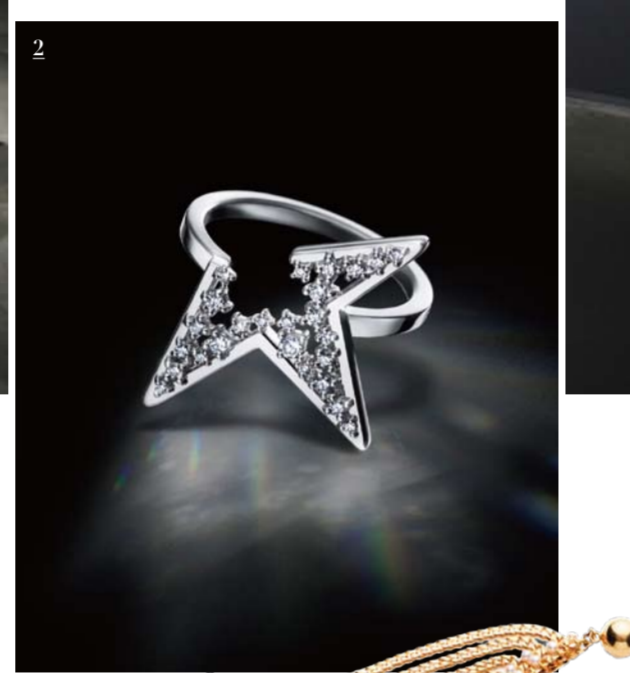
똑같은 크기의 진주를 나란히 늘어놓아 밸런스(Balance)라는 이름을 붙여 진주에 '모던함'이라는 새로운 얼굴을 부여한 타사키(TASAKI). 타사키의 밸런스 컬렉션 이후로 진주는 더 이상 나이 들어 보이거나, 평생 한 번 살까 말까 한 보석이 아닌, 현대적인 우아함의 상징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번 2014~15 A/W 컬렉션 역시 기존 진주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모두 탈피해 완전히 새로운 것을 선보였는데, 가장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M/G 타사키 컬렉션. 새롭게 타사키와 컬래버레이션하게 된 M/G 타사키의 디자이너 멜라니 조르가 코플러스(Melanie Georgacopoulos)는 이전부터 사람들이 갖고 있던 진주에 대한 선입견에 대해 다양한 방법과 모던하면서도 고정관념을 탈피한 디자인으로 타사키 주얼리에 또 한 번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었다. 반으로 잘린 진주가 아름다울 수 있다고 상상해본 적이 있는가? 진주를 향한 탐구심으로 탄생한 슬라이스드(Sliced) 컬렉션은 반으로 잘린 진주의 안쪽 면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어 있다. 진주마다 핵의 갯수가 다르고, 또 다른 진주의 내부에서는 아주 작은 알갱이를 발견할 수 있어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진주 본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진주의 독특하고 특별한 면모이기에, 진주를 향한 디자이너의 호기심과 탐구심이 놀라운 컬렉션을 완성한 것. '어릿광대라는 뜻의 아를르캥(Arlequin) 컬렉션은 18K 옐로와 화이트 골드가 진주의 반을 감싸고 있는데, 마치 가면을 쓴 모습처럼 보인다. 조개 껍질에서 영감을 받은 셸(Shell) 컬렉션은 진주를 보다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피부에 직접 닿는 면적이 넓어 특별하다.

화려한 존재감을 발하는 라지(Large)

와 체인드(Chained) 역시 디자이너 멜라니 조르가코플러스의 감각을 확인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모두 10월 그랜드 오픈한 롯데백화점 월드타워점에서 만나볼 수 있다.

## 진주로 수놓은 은하수, 어브스트랙 월드

타사키만의 매력을 표현한 이번 2014~15 A/W 컬렉션의 메인인 숙련된 장인의 기술과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타쿤 파니치갈의 눈부신 상상력으로 완성한 어브스트랙 월드(Abstract World). 눈부시게 반짝이는 은하와 별들처럼 화려한 주얼리로 구성된 이번 컬렉션에서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 유니크하고 허를 찌르는 형태를 통해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듯 매력적이면서 신비한 아름다움을 품은 자연계의 생물과 우주의 별을 추상적으로 표현했다. 반짝이는 별들의 외관상 형태를 세련된 디자인으로 표현한 '어브스트랙 스타(Abstract Star)와 리파인드 리벨리온 라인의 새로운 디자인으로 DNA의 나선 형태를 연상케 하는, '리파인드 리벨리온 트위스트(Refined Rebellion Twist)'는 기존 타사키의 매력에 예술적인 터치를 더한 느낌이다. 꽃봉오리를 연상케 하는 진주와 그 사이에 밝은 야심 미술과 같은 멜레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인 블룸(In Bloom)'은 보는 각도에 따라 여러 가지 모습을 즐길 수 있어 더욱 매력적인 제품이다. 특히 아코야 진주 사이로 멜레 다이아몬드가 세팅된 독특한 형태로, 이러한 공정 과정은 타사키의 장인 정신을 또 한 번 실감하게 한다. 봄을 기다리는 꽃과 야심이 슬 등의 자연물을 가장 아름답고 우아하게 재해석한 제품이다. 18K 화이트 골드 바에 파베 세팅된 다이아몬드가 마치 은하수의 별을 연상시키는 '밸런스 럭스(Balance Luxe)', 손가락 위에서 별들이 우주의 궤도를 공전하는 모습이 떠오르는 '밸런스 플러스(Balance Plus)' 역시 기존 타사키의 모던한 매력을 더욱 극대화한 작품. 밸런스 컬렉션의 다양한 가능성을 시사한 모델이기도 하다. 타사키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타쿤 파니치갈이 바라는 진주의 세상은 자연에서 모티브를 얻었을 뿐 아니라 각기 개성이 살아 있어 더욱 예술적이다. 타쿤이 합류한 이후로 진주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는 타사키. 전통적인 아름다움에 젊음의 활기를 불어넣은 타사키의 새로운 진주 컬렉션은 모던 주얼리의 세계에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다. 문의 02-3461-5558



- 1 향동동 호텔아트센터 JNB갤러리에서 개최한 타사키의 새로운 컬렉션 이벤트. 화이트 공간에서는 M/G 타사키, 블랙 공간에서는 2014~15 A/W 컬렉션을 선보였다.
- 2 반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의 외관상 형태에서 영감을 받은, 캐주얼하면서도 화려한 디자인의 어브스트랙 스타 컬렉션. 다이아몬드와 진주를 사용했음에도 합리적인 가격대로 출시했다.
- 3 화이트 골드가 겹 형태로 진주를 감싸고 있는 아를르캥 컬렉션.
- 4 골드와 진주를 인쇄적이고 화려하게 매치한 볼륨감 넘치는 셸드 컬렉션.
- 5 조개 껍질에서 영감을 받은 셸 컬렉션.
- 7 진주의 나이테와 같은 단면이 보이는 슬라이스드 컬렉션.



## Meaningful Materials

열정, 행복, 사랑, 용기, 지혜 등은 우리 삶을 지탱하는 아름다운 단어다. 이런 의미를 담은 주얼리를 착용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가슴 설레는 일이 아닐까. 자신의 이야기를 주얼리로 표현한다는 차별화된 콘셉트를 도입한 덴마크 브랜드 판도라는 소박하면서도 세련된 북유럽 감성, 완성도 높은 핸드메이드 방식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론칭한 에센스 컬렉션은 모던츠 컬렉션에 이어 스토리텔링을 가능하게 한 대표적인 컬렉션. 각각의 참에는 고유한 의미가 담겨 있고,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선택해 나만의 팔찌를 만드는 방식이다. 2014 F/W 시즌에는 처음에 선보인 24개의 참에 이어 12개의 에센스 참을 새롭게 추가해 총 36개의 컬렉션을 선보인다. 자유롭게 흐르는 파편, 운을 내거나 깎은 짐스톤, 텍스처가 살아 있는 표면 등에서 업그레이드된 기술력과 세련된 디자인을 엿볼 수 있다.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선사업가이자 모델인 판도라 앰배서더 카일리 쿤(Kyleigh Kuhn)은 어릴 적부터 영향을 받은 할머니의 말씀이 삶의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언제나 가슴속에서 하는 말을 따르라"라는 가르침에 따라 자신의 직면에 귀 기울이며 자신감을 높일 수 있었다고. 일을 해결함에 있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창의적인 해법을 찾는 것,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런 의미에서 카일리 쿤이 선택한 에센스는 창조(Creativity), 인내(Patience), 직관(Intuition). 이번 시즌 처음으로 선보인 골드는 창조와 직관을 상징하는 참으로 태어났다. 14K 골드와 반짝이는 큐빅 지르코니아 소재로 정교하게 표현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카일리 쿤이 선택한 판도라 에센스 컬렉션. (왼쪽부터 차례대로) 영혼의 재가 이끄는 대로 따르라는 '직관(Intuition)'. 이번 시즌 처음 선보이는 14K 골드 패턴은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을 표현한다. 블루 아코야드 참은 차분하게 그 순간을 기다리라는 '인내(Patience)'. 자유롭게 흐르는 14K 골드 레이스 패턴은 모든 경계를 허무는 무한한 창의력을 구현한 '독창성(Creativity)'.



# beautiful Values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순간을 의미가 깊은 참으로 표현하는 프레스티지 덴마크 주얼리 브랜드 판도라. 핸드메이드 참으로 여성 내면의 가치를 전달하는 에센스(Essence) 컬렉션의 성공적인 론칭에 힘입어 2014 F/W 시즌 12개의 새로운 에센스 참을 추가해 보다 풍부한 스토리를 완성했다. 판도라 글로벌 앰배서더의 아름다운 삶과 가치, 그녀들이 들려주는 에센스 이야기.



## Express Your Inner Values

카일리 쿤에 이은 에센스 컬렉션의 새로운 앰배서더는 런던에 로레인 파스칼레(Lorraine Pascale). 성공적인 모델로서의 커리어를 뒤로하고 요리사에 과감한 도전장을 내밀어 제의 인생을 시작했다. 스스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열정을 가지고 누구보다도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그녀는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나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보는 섬세한 마음가짐이라고 말한다. 이에 따라 로레인 파스칼레는 '헌신(Dedication)', '배려(Caring)', '믿음(Belief)'이라는 에센스를 선택했다. 이같이 이상적이고 섬세한 가치를 나타내는 참은 수정이나 마노 등 파스텔컬러 보석으로 표현했으며, 반대로 독창성, 호기심, 너그러움, 세심함 등을 나타내는 참은 추상적인 패턴, 다이아몬드와 스톤 장식, 14K 골드와 큐빅 지르코니아를 있는 실버 등으로 차별화했다. 새로운 에센스 컬렉션 역시 각각의 참 내부에 신축성이 좋은 실리콘을 베이스로 넣어 브레아슬릿에 부드럽게 끼워지며, 원하는 지리에 참을 고정시켜 디자인할 수 있다. 기존에 선보인 매끄러운 스텔링 실버 브레아슬릿에 구슬 모양의 스텔링 실버 브레아슬릿을 새롭게 추가했다. 아름다운 삶과 진실한 가치를 완벽하게 표현하는 에센스 컬렉션은 여러 개의 참과 함께 스타일링했을 때 더욱 멋스럽게 표현할 수 있다. 인생의 소중한 메시지를 담은 에센스 컬렉션은 단순한 주얼리 이상의 존재인 것이 확실하지 않은가. 문의 02-551-5717 에너지 **이벤트**

로레인 파스칼레가 선택한 판도라 에센스 컬렉션. (왼쪽부터 차례대로) 은은한 핑크빛이 도는 로즈 쿼츠(rose quartz) 참은 상상력과 배려의 감정을 불어넣는 '배려(Caring)'다. 눈송이 형태의 흑요석은 부정적인 것을 막고 두려움은 받아들이게 한다고 알려져 있다. 평온함과 자신에 대한 강한 믿음을 불러 일으키는 참은 믿음(Belief). 1백개의 반짝이는 스톤으로 이루어진 '헌신(Dedication)' 참은 무한함을 상징한다.



제품 사진: 박진주



# rare Luxury

프레스티지 화장품을 창시한 에스티 로더의 비전은 가장 진귀한 성분과 최신 테크놀로지를 절묘하게 결합한 하이엔드 세럼, 리-뉴트리브 얼티미트 다이아몬드 스킴프팅/리퀴시닝 듀얼 인퓨전으로 이어진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 피부를 위한 최상의 성분, 트러플

1956년 최초로 '프레스티지' 화장품을 출시한 에스티 로더. 백화점 프레스티지 판매장에서 항상 최상위를 차지하는 에스티 로더의 리-뉴트리브 라인은 60여 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 정통성을 이어와 여자들의 피부 고민, 특히 탄력과 안티에이징에 대한 좋은 해답이 되고 있다. 리-뉴트리브 라인은 선물용으로 각광받을 뿐 아니라 예단에 넣는 품격 있는 화장품으로 인기를 얻을 정도다. "여자들이 모두 나만의 작은 럭셔리를 꿈꾼다"라고 이야기한 에스티 로더 여사의 정신은 진귀한 성분과 최신 테크놀로지로 완성한 화장품인 리-뉴트리브에 담겨 있는데, 지금 주목해야 하는 것은 리-뉴트리브 얼티미트 다이아몬드 스킴프팅/리퀴시닝 듀얼 인퓨전이다. 길고 복잡한 이름이지만 이 제품을 설명하는 키워드는 간단하다. 바로 블랙 트러플과 듀얼 세럼. 먼저 트러플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세계 3대 진미로 알려진 트러플이 아직까지 화장품 성분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의아한 일이다. 에스티 로더는 트러플 전문가들이 세심하고 정교하게 재배한 블랙 다이아몬드 트러플을 선택했다. 짙은 검은빛을 띠는 이 트러플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10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고, 1년 중 12월부터 3월까지만 채취할 수 있어 원터 블랙 트러플이라 불리기도 한다. 희소성 때문에 1kg에 1백50만~3백만원의 호가하는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에스티 로더는 트러플이 지닌 우수한 효능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 블랙 다이아몬드 트러플을 독자적인 9단계의 공정을 통해 순수한 농축액으로 정제한다. 이 과정을 통해 트러플이 지니고 있는 풍부한 성분을 그대로 보존하고, 블랙 다이아몬드 10~15kg에서 오직 1kg의 순수한 농축액을 얻어 블랙 다이아몬드가 지닌 특별한 에너지를 피부에 전달하기 위한 최적의 추출물을 얻어낸다. 이 특별한 추출물은 피부의 자연적인 에너지 생성을 촉진해 더욱 젊고 건강한 피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 2개의 심장, 리-뉴트리브 듀얼 인퓨전

이 새로운 하이엔드 세럼은 트러플이라는 특별한 성분만큼이나 독특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바로 두 포물러가 각기 다른 병에 담겨 있는 듀얼 타입이라는 것. 그렇다면 왜 포물러가 2개여야 하는가? 이것은 바로 최상의 성분이 내는 효과를 극대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에스티 로더의 배려다. 트러플이 들어 있는 왼쪽의 골드 컬러 보틀에는 탄력 넘치고 밀도 있는 얼굴선을 완성하는 차세대 스킴프팅 기술을 담았고, 플래티넘 컬러 보틀에는 피부를 매끄럽게 정리해주는 리퀴시너를 담아 절묘한 만남을 완성했다. 블랙 다이아몬드 트러플 추출물이 피부의 자연적인 에너지 활성화를 돕고 노화로부터 스스로 방어하고 개선하는 힘을 길러주어 피부 세포의 에너지를 강화하고 피부 재생 능력을 증진한다. 자연적으로 피부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하는 것이다. 또 플래티넘 컬러 보틀에는 후생 유전학 스किन케어 분야의 리더로서 피부 수명을 관장하는 장수 유전 인자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해온 에스티 로더의 결과물, 장수 유전자 서투인-6의 세포 활성화를 돕는 독자적인 유스 서스테이닝 테크놀로지까지 담아 더 믿을 수 있다. 매끄럽고 고른 피부 톤을 완성하는 남양진주와 광학 입자 성분이 피부에 즉각적으로 평채를 주어 윤광을 완성하기에 더욱 매력적이다. 트러플 성분이 피부 깊숙이 침투해 피부가 오랫동안 젊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화를 가속시키는 다양한 요인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골드 인퓨전, 장수 유전자 서투인-6를 자극해 피부 에너지를 활성화하는 최신 테크놀로지가 2개의 효과를 넘어 안티에이징 시너지를 일으키는 것이다. 또 리-뉴트리브의 마니아라면 누구나 인정하는 바겠지만 한번 사용하면 다른 제품으로 바꾸기 힘들다는 것이 바로 역사 깊은 에스티 로더의 힘이다. 기술력부터 초고가의 진귀한 성분까지 까다로운 여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도전에 도전을 거듭하는 유서 깊은 화장품 브랜드의 최신 상품이라는 것은 믿을 만한 품질보증서와 같다. 가장 진귀한 자연 성분과 최신 테크놀로지를 하나로 담은 특별한 세럼은 지친 피부에 새로운 드라마를 선사할 것이다. 30ml 52만원대. 문의 02-3440-2772 에디터 **배미진**



## 메이크업으로 탄력까지 두드리다

30대에 접어들면서 제일 먼저 실감한 건 떨어진 탄력도 아닌, 급격히 저하된 '피부 탄력'이었다. 해가 갈수록 두루뭉술한 얼굴 라인과 인상을 쓰지 않았는데도 마치 불도그처럼 상단 얼굴이 연출되는 건, 나이와 함께 눈 옆, 볼 옆, 입 옆을 잇는 U라인의 탄력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설화수에서 새롭게 선보인 '블루미네이팅파운데이션 SPF 35 PA+++'을 처음 만났을 때 호기심이 발동했던 것도 30~40대 여성의 가장 큰 고민인 피부 탄력을 한층 끌어올리는 신개념 메이크업 제품이라는 점이다. 스킴케어 제품도 아닌데 과연 파운데이션을 바르는 것으로 피부가 탄력 있고 화사하게 피어올를 수 있을까? 직접 발라보고, 성분과 기술력을 들여다보았다. 우선 주목해야 할 것은 아시아의 철학과 지혜를 담아 한방에 과학을 더한 설화수만의 안티에이징 성분과 기술력이다. 설화수 고유의 안티에이징 노하우를 바탕으로, 탄력크림에 함유된 항노화 한방 성분 50% 이상을 블루미네이팅파운데이션에 담아 메이크업을 하는 동안에도 지속적인 안티에이징 케어를 가능케 하는 것. 피부 처짐이 가장 신경 쓰이는 U라인의 탄력을 끌어올리고, 빛 반사 에너지가 큰 블루 펄 파우더를 함유해 탄력 저하로 생기는 피부 그늘을 화사하게 개선하는 것이 핵심 효능이다. 이와 더불어 용기에 한 번 더 혁신을 더했다. 한눈에 보아도 개성이 넘치는 텐션망이 인상적인데, 이는 피부 질감을 모사해 손가락으로 표면을 눌렀을 때 마치 탄력 있는 아기 피부를 만지듯 탄력감이 느껴지는 것이 특징이다. 덕분에 쫄쫄한 파운데이션의 질감이 더욱 실감 나게 느껴진다. 바르는 재미가 있다는 것도 매력적이다. 과거 여인들이 사용하던 단장 도구를 연상케 하는 입체 탄력 퍼프를 사용해 바르는 점이 매우 신선하다. 텐션망에 퍼프를 톡톡 두드리니 마치 수놓듯 매화문 꽃살 패턴의 파운데이션 제형이 곱게 묻어나는데, 양 조절의 어려움이나 손톱에 제형이 끼는 현상이 없어 깔끔하게 메이크업을 할 수 있다. 탄력 퍼프를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파운데이

션이 피부에 녹아들듯 자연스럽게 밀착될 뿐만 아니라 탄력과 윤기가 살아났고, 코 옆이나 눈가 등 굴곡진 부위까지 깨끗하게 커버되었다. 피부 처짐으로 생긴 칙칙함이 환하게 커버된 인상이 훨씬 어려운 느낌이다. 게다가 메이크업을 했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가벼운 데다 뭉침 없이 촉촉하고 매끈하게 마무리되어 만족스럽다. 가장 큰 점수를 주고 싶은 부분은 수정 메이크업이 필요 없을 정도로 피부의 화사한 빛이 저녁때까지 유지된다는 점이다. 블루미네이팅파운데이션을 사용해보니 이제 말할 수 있다. 메이크업만으로도 피부가 달라질 수 있다? Absolutely Yes.(명백히 그렇다) *\_by <스타일 조션일보> 에디터 권유진*

## 건강한 윤기로 다시 피어나는 안색

커버력 좋은 BB크림이나 물광이 도는 리퀴드 파운데이션에도 눈길을 쬐봤지만 이전 달랐다. 2개의 애플리케이션이 내장되어 있는데, 먼저 얇은 퍼프로 밑바탕을 깔고 조션 시대 미용 기구처럼 생긴 탄력 퍼프로 꼼꼼하게 두드리는 2단계를 거쳤다. 팽팽한 탄력망 위에 편칭된 패턴만큼 퍼프에 묻어 나와서인지 피부 톤이 얼룩덜룩해지거나 뭉칠 일이 없었다. 이 말은 곧 메이크업 초보자들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탄력 퍼프는 쿡방을 이나 눈꺼풀처럼 굴곡진 부위에서 더욱 진가를 발휘했다. 오후가 되도 칙칙해지지 않고 내 피부 톤에 맞게 화사하게 밝혀주니 역시나 흡족. 공들여 메이크업을 할 때는 여러 번 반복해서 겹겹이 쌓아 올리면 되니 두꺼워지거나 인위적으로 보이지 않았다. 피부 결점을 티 안나게 감춰주면서 원래 좋은 피부처럼 건강해 보이는 윤기를 선호한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을 듯. 매일 쓰는 파운데이션인 만큼 사용하기가 편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_by <스타일 조션일보> 에디터 이예진 30g 8만원대. 문의 080-023-5454*



1 에스티 로더의 최고급 라인인 리-뉴트리브의 신제품 다이아몬드 듀얼 인퓨전. 두 가지 텍스처가 담겨 있다. 2, 3 최고의 식재료이자 진귀한 보물로 알려진 블랙 다이아몬드 트러플, 피부 스스로의 에너지를 충전하는데 효과적이다. 4 트러플을 화장품 성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1만 시간 이상의 공정이 필요하다. 5 수확까지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귀한 블랙 트러플을 재워하는 데는 훈련된 개와 트러플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다.

## SPECIAL EVENT COUPON

### <스타일 조션일보>와 에스티 로더가 함께하는 신제품 리-뉴트리브 다이아몬드 듀얼 인퓨전 체험분 증정 프로모션

본 쿠폰을 지참하시고 에스티 로더 백화점 매장을 방문하는 <스타일 조션일보> 독자 여러분께 에스티 로더의 신제품 리-뉴트리브 다이아몬드 듀얼 인퓨전 샘플(2ml, 4만원 상당)을 드립니다.

◆ 기간 2014년 11월 5일(수)~11월 9일(일) ◆ 증정 장소 신세계백화점 본점·강남점·경기점, 갤러리아 명품관 웨스트현대백화점 대구점 본점·무역센터점, 대구점, 롯데백화점 본점·잠실점·부산본점

※ 1일 30개 한정수량으로 증정 증명하지 않습니다.

# voluminous Skin

보다 더 탄력 있고, 매끈한 피부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설화수의 안티에이징 노하우를 고스란히 담은 '블루미네이팅파운데이션'을 톡톡 두드려 발라보자. 나이와 함께 무너지는 피부 탄력을 한층 끌어올려 훨씬 밝고 어려운 피부를 만날 수 있을 테니까.

<스타일 조션일보> 뷰티 에디터 2인이 전하는 블루미네이팅파운데이션 리얼 체험기.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 Total anti-aging

밤낮으로 세럼을 바르고 또 바르지만 어느새 건조해지고 탄력을 잃는 피부 때문에 2%의 갈증을 느끼고 있다면, 기존 스킨케어의 한계를 뛰어넘는 클라란스의 토털 안티에이징 솔루션에 주목하자. 피부에 나타나는 모든 노화의 징후에 대응하는 강력한 안티에이징 파워가 동안 피부로 가는 지름길의 문을 열어줄 것.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 하나의 세럼이 지닌 한계를 뛰어넘다

매달 수많은 화장품을 접하고 소개하는 뷰티 에디터들이 입을 모아 극찬하는 세럼이 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클라란스의 '더블세럼'. 품질을 염려해 대용량 더블세럼을 여러 개 구입해 두고 바르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미니아중이 형성된 클라란스의 베스트셀러다. 이토록 더블세럼이 수년간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풍부한 보습력과 강력한 안티에이징 효과, 흡수가 빠른 촉촉한 텍스처까지 모두 갖춘, 가장 이상적인 세럼이기 때문이다. 처음 출시된 후 27년간 일곱 번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7세대 더블세럼이 출시되었다는 것 역시 그만큼 고객의 요구를 반영하고 개선해 더욱 효과적으로 재탄생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제품 이름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2개로 나누어진 각기 다른 두 가지 텍스처와 용기는 더블세럼의 핵심 기술이자 주요 특징이다. 20가지 식물성 성분이 완벽한 효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이드라+리피드 시스템을 적용, 유분과 수분의 두 가지 텍스처로 분리되어 있다가 펄핑 시 피부 본연의 유수분 밸런스와 동일한 황금 비율로 섞여 나온다. 이로써 피부가 최상의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누구나 꿈꾸는 촉촉하고 매끄러운 피부로 가꿀 수 있는 것. 실제 임상 실험 결과, 사용 4시간 후 피부 수분이 75%, 영양분의 피부 흡수율이 최대 20% 증가했다. 또 사용 7일 후에는 피부 속 콜라겐 함유량이 무려 91.5% 증가하는 등 피부 탄력이 월등히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투명한 텍스처는 바를 땀 물기가 보일 만큼 촉촉하게 느껴지고, 피부에 흡수된 후에는 오일 막을 씌운 듯 윤기가 흐르는 것이 특징이다. 이 세럼 하나만 사용해도 충분한 만큼 보습력이 뛰어나며 끈적이지 않아 여러 번 덧바르기에 좋다. 30ml 12만원.

## 동안 피부를 완성하는 토털 안티에이징

예민하고 쉽게 노화가 진행되는 눈가와 탄력이 떨어진 얼굴 라인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선 더블세럼과 함께 클라란스의 대표 탄력 라인인 '엑스트라-퍼밍 아이 크림'과 '엑스트라-퍼밍 데이 크림'을 사용해볼 것. 클라란스가 35년간 쌓아온 탄력 케어 노하우를 담은 낮 전용 크림인 엑스트라-퍼밍 데이 크림은 강력한 식물 추출물이 피부 속 탄력을 담당하는 연결 고리를 재건해 더욱 탱탱하고 탄력 넘치는 피부로 가꿔준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성분은 피부 속 탄력 고리를 강화하는 오가닉 그린 바나나 추출물과 피부 속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오가닉 레몬 타임 추출물. 수분크림을 바른 듯 피부가 즉각적으로 촉촉하고 매끄러워져 탄력뿐만 아니라 안색까지 화사하게 개선된다. 모든 피부에 사용할 수 있는 흡수가 빠른 촉촉한 질감의 크림과 피부가 극도로 건조한 사람을 위해 보습력을 강화한 리치한 타입의 크림 두 가지로 선보이니 자신의 피부 타입에 맞게 선택하도록, 눈가가 칙칙하고 주름지면 나이가 더 들어 보이는 법. 오직 아시아 여성을 위해 특별히 개발한 '엑스트라-퍼밍 아이 크림'은 눈가 중 노화에 가장 취약한 2개의 트라이앵글 부위에 빈틈없이 작용해 주름과 아이백, 칙칙한 눈가에 모두 효과적인 토털 아이 크림이다. 피부 탄력에 도움을 주는 오가닉 그린 바나나, 피부를 부드럽게 가꾸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장미, 눈 밑 칙칙함과 아이백의 형성 속도를 늦추는 자귀나무 추출물 등 강력한 효과의 식물성 성분을 함유해 즉각적이면서도 오래 지속되는 토털 안티에이징 효과를 느낄 수 있다. 신태하고 촉촉한 질감과 은은한 보태니컬 향도 빼놓을 수 없는 매력 포인트다. 엑스트라-퍼밍 데이 크림 50ml 11만원, 엑스트라-퍼밍 아이 크림 15ml 7만5천원, 문의 080-542-9052 **에디터 권유진**

# 바디트리오 향기 레이어링 법칙

출근 시간의 기분 좋은 향이 하루 종일 이어진다고? 24시간 향이 사라지지 않는 조 말론 런던의 향기 레이어링 법칙이라면 가능하다. 바디 앤 핸드 워시로 시작해 향수 바디크림, 향수로 마무리하는 3단계 방식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향의 세계로 당신을 이끌어줄 것이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 24시간 향기가 사라지지 않는 조 말론 런던 바디 레이어링 법칙

1994년 런던에서 시작한 부티크 향수 &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조 말론 런던. 대중 코즈메틱 브랜드의 향수가 일 반적이었던 2012년, 국내 향수 시장에 등장한 조 말론 런던은 옷이나 구두처럼 향수도 맞춤형이 가능하다고 제안 한다. 남들과는 다른 나만의 고유한 향, 나만의 시그니 처 향을 갖고 싶어 하는 한국 여성들의 반응이 뜨거울 수 밖에. 자신이 조향사가 되어 직접 향을 고르고 레이어드 하는 조 말론 런던만의 방식을 '프레이그런스 캠페이닝' 이라고 일컫는데, 이는 자신의 감각적인 취향을 대변하 는 행위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향과 향을 결합하는 프레이그런스 캠페이닝 과정을 넘어 요즘은 바디 & 핸드 워 시와 바디크림, 향수로 이어지는 3단계 레이어드 방식 이 대인기다. 일명 '삼둥이'라고 일컫는 향기 레이어드 법칙은 SNS를 비롯해 트렌드setter 사이에서 화제를 몰 고 있다. 레이어링 1단계는 신태한 향기 바디 워시로 사 위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조 말론 런던의 다양한 향 중 에 서도 시트러스 향이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 라임 바질 앤 만다린은 상쾌한 라임, 특 소는 바질과 백리향의 어우러 지 사할 때이다 그 느낌이 달라 중독성이 높은 향으로 도 알려져 있다. 이 바디 워시의 풍부한 거품과 향으로 마사지하듯 닦아내고 나면 피부에 생기와 활력이 돈다. 바로 크림을 바르지 않고 잠시 전향을 느껴보는 것도 향 을 즐기는 또 하나의 방법. 2단계는 프루티 계열의 입몰 리시 페어 앤 프리자아 바디크림을 바를 차례. 조 말론 런던의 바디 크림은 향수 한 보틀을 그대로 부은 듯하다 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향수 브랜드의 자존심을 확실히 세워주는 제품이다. 풍부한 영양 공급은 물론 피부 보호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코코아 버터와 스위트 이몬드 같은 보습 성분이 풍부해 하이엔드 보디 케어를 받은 듯 한 느낌이 들게한다. 잉글리시 페어 앤 프리자아는 화이트 프리자아 부케 향에 갖 익은 배의 신선함, 애플, 파출 리, 우디 향으로 은은함을 더했다. 3단계는 플로럴 계열 의 피오니 앤 블러쉬 스위트 코롱으로 마무리한다. 붉 은 사과의 달콤한 향과 부케에 사용하는 꽃으로도 인기 가 높은 작약의 향이 어우러져 후각을 부드럽게 자극하 는 매혹적인 향수다. 라임 바질 앤 만다린 바디 워시, 잉 글리시 페어 앤 프리자아 바디크림, 피오니 앤 블러쉬 스 웨이드 코롱으로 이어지는 세 단계의 프레이그런스 캠페 이닝이 있다면 옷처럼 생선없이 24시간 내내 사라지 지 않는 나만의 독특한 향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문 의 02-3440-2750 **에디터 이예민**

## 조 말론 런던의 3단계 향기 레이어링

- 1단계 '신태하게' 향기 바디 워시** 조 말론 런던의 3단계 향기 레이어드 중 1단계는 바디 워시로 시작된다. 온몸 가득 고스란히 향이 느껴지는 풍부한 거품과 은은한 전향을 느낄 수 있다. 건조하지 않고 신태하며 촉촉한 것도 장점이다.
- 2단계 '촉촉하게' 향수 바디크림** 상쾌하게 샤워를 끝낸 후 가볍게 온몸을 닦고 향수 바디크림을 바른다. 호호바 오일과 코코아 버터, 스위트 이몬드 등 보습에 탁월한 성분이 들어 있어 건조함을 해결한다.
- 3단계 '리치한' 타치 코롱** 마지막 단계는 향수로 마무리 할 차례. 옷을 입기 전 촉촉한 피부에 향수를 뿌리면 그 전 단계의 향과 신비롭게 어우러져 나만의 향로 거듭 난다. 3개를 함께 사용하면 향이 훨씬 오래가고 풍부해 지는 것은 당연하다.



(오른쪽 위부터 차례대로) 잉글리시 페어 앤 프리자아 바디크림(175ml, 11만5천원), 피오니 앤 블러쉬 스위트 코롱(100ml, 16만9천원), 라임 바질 앤 만다린 바디 앤 핸드 워시(250ml, 6만원)

유주영 매거진



# SHOWROOM



**판도라** 2014 F/W 뉴 에센스 컬렉션 덴마크 주얼리 브랜드 판도라가 2014 F/W 시즌을 맞아 기존 24개의 컬렉션에 12개를 더한 뉴 에센스 컬렉션을 선보인다. 창을 통해 내연의 가치를 전달하는 에센스 컬렉션은 진정한 자신의 내연과 자아, 그리고 가장 소중한 가치와 꿈을 적극적으로 표현한다. 특히 이번 시즌엔 14K 골드 컬러로 이룩어진 침을 만날 수 있다. 판도라 공식 홈페이지(www.pandora.net)에서는 관련한 질문을 통해서 개인의 성향에 맞는 에센스 컬렉션을 선보여주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문의 02-551-5717

**그라프 누아지 컬렉션** 그라프에서 누아지(Nuage) 컬렉션을 선보인다. 교토의 긴카쿠지, 마라케시의 마조갈렛 등, 런던의 큐기 등등 그라프의 디자인 이사 앤 제프루아가 찬사를 아끼지 않는 대상이자, 그라프 누아지 컬렉션 탄생의 배경이다. 움직이는 구름의 형상을 그대로 재현한 네크리스는 굵아지는 모양의 파베 다이아몬드 브라질리언트 컷 보석을 감싸 안은 형태로 표현했다. 눈부신 컬러 스펙트럼을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 사파이어, 루비, 에메랄드 이국적인 꽃 모티프를 표현하기도 했다. 문의 02-2256-6810

**해리 윈스턴 애비뉴 클래식** 해리 윈스턴의 가장 아이콘이던 타임피스 중 하나인 애비뉴 컬렉션은 18K 로즈 골드 또는 화이트 골드로 제작한 직사각형 케이스와 최상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로 촘촘히 세팅한 베젤이 특징이다. 은은한 빛을 발하는 마더오브펄 다이얼과 6시 방향 스물 세컨드 창을 볼 수 있으며, 사틴 스트랩 또는 악어 가죽 스트랩을 매치해 취향에 따라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다. 문의 02-540-1356

**오메가 드 빌 트레저** 오메가에서 드 빌 트레저를 국내에 선보인다. 1949년 선보인

최초의 트레저를 복원한 제품으로, 전설적인 30mm 칼리버의 얇고 클래식한 골드 케이스가 매력적이다. 오메가가 선보인 무브먼트 중 가장 진보한 것이니 할 수 있는 마스터 쿼크-엑사셀 8511G 무브먼트를 탑재했으며, 박스 형태의 스크래치 방지 사파이어 크리스탈 아래에는 '클라우드 파리(Cloud de Paris)' 패턴으로 장식한 은빛 오발린 돌 형태의 다이얼이 자리하고 있다. 문의 02-511-5797

**페라기오 워치 by 갤러리어클락 1898 스포츠 시리즈** 페라기오 워치에서 '1898 스포츠 시리즈'를 새롭게 선보인다. 로제티팅 베젤과 200m 방수 기능을 더해 활동적인 느낌을 강조했다. 블랙 다이얼과 실버 메탈 스트랩, 화이트 다이얼에 러버 밴드 등 2가지 디자인으로 선보이며, 43mm의 커다란 다이얼 사이즈는 시계판으로도 포인트를 주기에 충분하다. 전국 갤러리어클락 매장에서 만날 수 있다. 문의 02-3284-1300

**해밀턴 인터스텔라** 해밀턴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인터스텔라(Interstellar)>를 통해 스크인에 복귀한다. 영화에서 시간은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해밀턴은 '머피(매켄지 포이)와 제카(차스테인 레브)의 유니크한 사계를 디자인하기 위해 영화 제작진과 협력해 <인터스텔라>만을 위한 유니크한 사계를 탄생시켰다. 카키 파이널트 데이 타이틀'를 적용한 주인공 쿠퍼(매튜 매카너히) 분도 볼 수 있다. 휴머니즘과 놀란의 아이디어가 결합된 블랙버스티로 하얀기 최고 기대적으로 손꼽히는 이 영화는 11월 6일 개봉한다. 문의 02-3149-9593

**블링팡 피프티 패럴즈 바티스카프** 블링팡에서 피프티 패럴즈 바티스카프를 새롭게 선보인다. 피프티 패럴즈 컬렉션의 모든 핵심 기술을 유전자하면서 바티스카프 특유의 디자인적 요소를 갖추었다. 다이얼의 산버스트(sunburst) 패턴과 원형 패턴의 크로노그래프 카운터, 직사각형의 시·분침은 1950년 선보인 바티스카프 모델의 형태를 떠올린다. 18K 레드 골드 베젤 위블로 고유의 H 모양 나사와 6개의 타타늄 스크루가 돋보이는 골드 케이스의 조화가 눈에 띄며, 3시 방향에는 30분계 크로노그래프, 9시 방향에 스물 세컨드 크로노그래프가 장착되어 있다. 스키텔론 다이얼로 날짜면 전체를 볼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문의 02-3467-8426

**사넬 화인 주얼리 2014 울트라 컬렉션** 사넬 화인 주얼리의 상징적인 울트라 컬렉션은 블랙과 화이트



**캐논 파워샷 G7 X** 캐논에서 1.0형 이미지 센서와 뛰어난 성능의 고배율 줌 렌즈를 탑재한 프리미엄 하이엔드 카메라, 파워샷 G7 X를 선보인다. 일반적인 하이엔드 콤팩트 카메라보다 약 2.8배 센서 사이즈는 저감도부터 고감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촬영시 노이즈 감소와 고화질의 표현이 가능하다. '다직 DIGIC 6' 영상 처리 엔진을 장착해 이미지 처리 속도도 크게 향상시켰으며, 고감도에서 노이즈를 대폭 감소시켜 더욱 선명한 화질을 제공한다. 또 최대 31개의 AF 포인트를 지원해 화면 가장자리에 있는 작은 피사체도 초점을 정확하게 빠르게 맞출 수 있다. 문의 1588-81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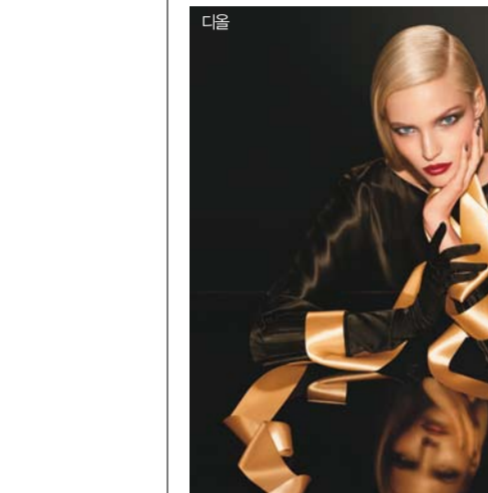
**클럽메드 몰디브 파놀루 빌라** 클럽메드에서 몰디브에 위치한 파놀루 빌라(Finolhu Villas)의 2015년 2월 공식 오픈을 앞두고 본격적인 홍보를 시작했다. 주변 자연환경과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총 52채의 빌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초록색, 주황색, 파란색 등 팝 컬러를 주로 사용해 세련되고 럭셔리하면서도 친밀한 분위기의 디자인 콘셉트를 구축했다. 특히 몰디브 생태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 건축 기술과 태양열 에너지를 이용, 철저한 친환경 기준하에 지은 것이 특징이다. 문의 02-3452-0123

세리미의 이름다움을 극대화한다. 견고하며 가볍고 출장이 잘 나지 않는 특징을 지닌 세리미는 사넬 화인 주얼리의 아이콘이 된 소재이기도 하다. 총 1.8캐럿에 달하는 1백44개의 라운드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진 울트라 링을 비롯해 다이아몬드 펜던트, 자연스럽게 움츠리는 이어링까지 새롭게 선보인다. 문의 02-3708-2002

**타파니 와이어 브레이슬릿** 타파니가 지난달 새롭게 론칭한 TIFFANY T 컬렉션은 브로드 이나살인 영문자 T의 강하고 그래픽적인 형상에서 영감을 얻었다. 곡선과 각도를 살린 간결한 아우트라인이 돋보이는 와이어 브레이슬릿은 로즈, 옐로, 화이트 등 18K 골드 소재뿐만 아니라 T 문양을 따라 정교하게 세팅한 라운드 컷 브라질리언트 다이아몬드 제품까지 다양하게 선보인다. 문의 02-547-9488

**위블로 빅뱅 에어로 뱅 골드** 위블로에서 스키텔론 다이얼의 '빅뱅 에어로 뱅 골드'를 제공한다. 18K 레드 골드 베젤 위블로 고유의 H 모양 나사와 6개의 타타늄 스크루가 돋보이는 골드 케이스의 조화가 눈에 띄며, 3시 방향에는 30분계 크로노그래프, 9시 방향에 스물 세컨드 크로노그래프가 장착되어 있다. 스키텔론 다이얼로 날짜면 전체를 볼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문의 02-540-1356

## LIFESTYLE



**에스티 로더 리-뉴트리브 얼티미트 다이아몬드 듀얼 인퓨전** 에스티 로더가 스킨케어 신제품, 리-뉴트리브 얼티미트 다이아몬드 스키텔/리퀴시딩 듀얼 인퓨전 크림을 출시했다. 자연의 진귀한 보물인 블랙 다이아몬드 트라볼 추출물과 에스티 로더의 독자적인 유스-서세이닝 테크놀로지를 적용한 이번 신제품은 골드와 플래티넘 2가지 병에 각각 담긴 특별한 포뮬라가 피부에 닿는 순간 강력한 효능을 선사한다. 문의 02-3440-2772

**조 말론 런던 향수 바디크림** 조 말론 런던이 초겨울을 앞두고 향수 한 병을 바디크림 속에 통째로 넣은 향수 바디크림을 제공한다. 바디크림 하나만으로도 촉촉하고 매끄러운 피부로 관리할 수 있으며 조 말론 런던의 고급스러운 157지 향 중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향을 골라 향수 대신 사용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 문의 02-3440-27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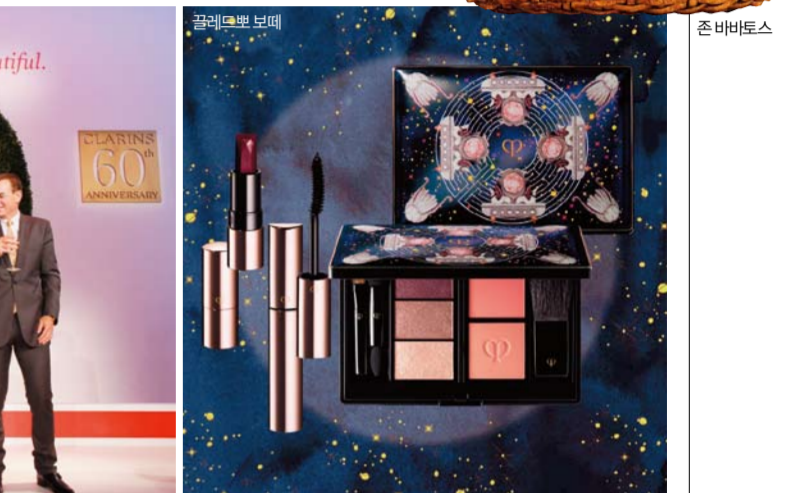
**메이크온 스페셜 키트** 모로페퍼사의 뷰티 디바이스 브랜드, '메이크온(MakeON)'이 셀프 뷰티 케어를 위해 '스페셜 키트'를 출시한다. 피부 운동 효



**에스티 로더 리-뉴트리브 얼티미트 다이아몬드 듀얼 인퓨전** 에스티 로더가 스킨케어 신제품, 리-뉴트리브 얼티미트 다이아몬드 스키텔/리퀴시딩 듀얼 인퓨전 크림을 출시했다. 자연의 진귀한 보물인 블랙 다이아몬드 트라볼 추출물과 에스티 로더의 독자적인 유스-서세이닝 테크놀로지를 적용한 이번 신제품은 골드와 플래티넘 2가지 병에 각각 담긴 특별한 포뮬라가 피부에 닿는 순간 강력한 효능을 선사한다. 문의 02-3440-2772

**조 말론 런던 향수 바디크림** 조 말론 런던이 초겨울을 앞두고 향수 한 병을 바디크림 속에 통째로 넣은 향수 바디크림을 제공한다. 바디크림 하나만으로도 촉촉하고 매끄러운 피부로 관리할 수 있으며 조 말론 런던의 고급스러운 157지 향 중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향을 골라 향수 대신 사용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 문의 02-3440-2750

**클레드보 보떼 2014 홀리데이 리미티드 컬렉션** 클레드보 보떼가 2014년 홀리데이 리미티드 컬렉션, '보떼 셀레스트'를 출시한다. 영국에서 활동 중인 듀오 디자이너 스와시 런던(Swash London)과 컬래버레이션해 탄생시킨 이번 홀리데이 컬렉션은 천상



**클레드보 보떼** 클레드보 보떼가 2014년 홀리데이 리미티드 컬렉션, '보떼 셀레스트'를 출시한다. 영국에서 활동 중인 듀오 디자이너 스와시 런던(Swash London)과 컬래버레이션해 탄생시킨 이번 홀리데이 컬렉션은 천상

**지미추맨 오드 트왈렛** 지미 추맨에서 첫 번째 향수를 출시했다. 라벤더와 민달리, 제라늄, 핑크 페퍼가 어우러진 아르마티 워터 계열의 향수로, 특유의 영정적인 남성의 기운이 느껴진다. 로즈를 느낌을 가진 보틀은 시련의 메탈 컬러에 차분한 그레이 컬러를 더해 견고한 금속 조각 작품을 보는 듯하다. 문의 080-800-8809

## BEAUTY

존 바비토스

지미추맨

## FASHION



**버버리 퍼 트리밍 다운 펠트 피카** 버버리에서 탈착이 가능한 리본 모피 트리밍이 특징인 다운 피카를 선보인다. 방수 처리한 기능성 원단과 매끄러운 가죽 트리밍, 구스 다운 100%로 뛰어난 보온성과 가벼운 무게가 특징이다. 허리, 밑단, 앞티스티치 지퍼 가스 내부에 스트링이 있어 허리 라인을 잡아주며, 허리 아래까지 내려오는 길이가 실용적이다. 문의 02-3485-6536



**에르메스 실크 하우스 한국어 버전 오픈** 에르메스는 실크 컬렉션을 위한 온라인의 첫 번째 인터랙티브 공간, '실크 하우스(La Maison des Carres)'를 한국어 버전으로 오픈한다. 에르메스의 다양한 실크 컬렉션을 웹사이트를 통해 소개하며, 스카프의 색상, 디자인, 소재에 대해 선택할 수 있다. 스카프뿐만 아니라 타이 컬렉션과 스타일링 방법,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했다. www.lamaisondescarres.com